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January 12, 2017 Vol. 561

2017년 세계 최대 종교는 '기독교'…약 24억 7,956만 명 이상

한국선교정보네트워크 1900~2050의 상황에서 본 2017년 세계선교통계표 공개

2017년 현재 세계 최대 종교는 '기독교'이다.

6일 공개된 한국선교정보네트워크의 '1900~2050의 상황에서 본 2017년 세계선교통계표'를 살펴보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2,479,563,000명으로 종교인 가운데 가장 많았다.

물론 이 통계에서 기독교인은 천주교(구교)와 개신교(신교)를 비롯해 각 지역의 독립교회, 동방정교, 기타 기독교(본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표방하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사람들) 등을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앞으로 적어도 30년 동안은 1위를 다른 종교에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삼은 이들은 마호메트(이슬람 창시자)를 중심삼은 무슬림들(1,784,443,000)보다 많았고, 그 다음은 힌두교인(1,031,722,000), 불교인(527,183,000), 중국민속종교인(436,273,000), 민속종교인(267,079,000), 신흥종교인, 시크교인, 유대교인 등이었다. 특별히 무종교인들의 숫자(833,894,000)도 상당했다. 무종교인들은 힌두교인들 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있었다.

기독교인 가운데 가장 많은 성도수를 거느린 단체는 천주교(1,231,050,000)였다.

그 뒤를 성공회를 포함하는 개신교인(559.258.000)이었으며, 이어 독립교회와 각 지역별 독립교회들, 동방정교, 기타 기독교 등의 순이었다. 이 중 복음주의 성도들의 숫자는 341,904,000명이었으며, 오순절주의/은사주의 성도들의 숫자는 669,177,000명이었다.

대륙별로는 라틴아메리카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591,094,000)이 있었으며, 아프리카(591,094,000) 유럽(554,198,000) 아시아(388,777,000) 북아메리카(230,277,000) 오세아니아(24,698,000) 순이었다. 또 47,000개의 교파와 5,527,000개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각 나라의 자국 내 사역자 총 숫자는 12,900,000명, 해외 선교사는 430,000명, 해외 선교 파송단체는 5,300곳이었다.

또 등록교인 개인수입은 53,000 billion 달러로 집계됐으며, 헌금은 900빌리언 달러로 추산됐다. 기독교 서적의 종류는 8,800,000개였으며, 기독 정기간행물 종류수는 71,000개, 연간 성경 인쇄는 87,400,000권이 됐다.

한편 세계 미전도 인구는 2,136,536,000명(28.4%)으로 집계됐다.

홍은혜 기자

"눈물로 새 시대 맞이하자"

오렌지카운티교협…신년하례예배 드리고 2017년 시작

오렌지카운티교협이 5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OC교협, 회장 이호우 목사)가 5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2017년의 시작을 알렸다.

조헌영 목사(수석부회장)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박재만 목사(행정부회장)가 기도하고 노상철 목사(부총무)가 성경을 봉독했다. 베데스다대학교의 주일엽 교수가 바이올린 연주로 은혜를 더했다.

이어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는 '다윗의 애가'(삼하1:17~27) 주제의 설교를 통해 "사무엘상과 하를 나눈 기준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여는 그 첫 시작이 애가라면, 우리도 올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애가 부르기를 원한다"고 했다.

고 목사는 최근 남가주 교계에 발생했던 여러 사건들을 의식한 듯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자"고 강조했다.

설교 후에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와 이호우 목사가 신년인사를 전했다. 이어 정효남 목사(총무)가 광고, 박용덕 목사가 축도했다.

OC교협은 전체 광고를 통해 "새해에는 대외 행사보다는 작은 교회 목회자의 목회를 실질적으로 돕고 작은 교회를 지원하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배 후 신년하례회는 신현철 목사(기획부회장)와 조형수 목사(영성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특히 전준홍 후원이사장, 임원들, 상임이사들이 앞으로 나와 인사하는 시간도 있었고 영 김 전 주하원의원과 유수연 사모(ABC통합교육구 교육위원)가 참석해 신년인사를 전했다.

김준형 기자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북한' 15년째 1위

북한 내 지하교인 색출 및 조중접경지역 사역자 테러 위협 여전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로 15년째 북한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10일 서울 안암동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픈도어의 기독교 박해 순위(WWL, World Watch List) 2017에서 북한은 15년 연속 세계 최악의 박해국으로 선정됐다"며 "평양 독재 정권의 종교에 대한 적대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히면서 "신자들은 완전히 지하에 갇혀 있고 대부분 연결이 끊어져서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신앙을 숨겨야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10면에 계속

한국 해외파송 선교사 2만 7,205명

KWMA "한국선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뛰어야 할 때" 강조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수가 2년 연속 동일한 2만 7,205명으로 집계됐다. 숫자만 보면 일단 성장이 멈춘 모양새로, 한국교회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이사장 신동우, 회장 황성주)는 9일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제27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6년 12월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을 발표했다. 파송국은 작년 내전으로 한 국가가 분리되면서 1곳이 늘어난 172개국이며, 선교사 수는 지난 2015년과 동일한 2만 7,205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교단 선교부, 선교단체 등 총 229개 단체가 참여했다.

KWMA는 "많은 교단 선교부, 선교단체가 선교활동과 무관한 일을 하거나 병가 등 개인 사유, 2~3년 사이의 단기 선교사 정리, 기간 만료, 약간의 허수 제거 등으로 교단을 포함해 총 23개 단체가 '허수 빼기', 즉 '마이너스 성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8면에 계속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카센.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국제 24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Better Together
"평신도를 깨운다"
날짜 2017년 5월 1일 - 6일 (월 - 금)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참가비 $450
- 사전등록 할인 $390 (2017년 3월 31일까지)
- 추가 특별 할인 부부동반/ 풀타임 신학생 ($100 할인, 2017년 3월 31일까지)
등록 마감 2017년 4월 14일
온라인 등록 http://bit.do/cal2017
* 모든 참가비는 식비, 숙박비, 등록비 및 공항픽업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15기 제자훈련 체험학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들에게 강의와 실습을 통한 제자훈련 인도법을 소개함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균형있는 사역을 돕는 Workshop
날짜 2017년 5월 8일 - 11일 (월 - 목)
대상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수료자
등록비 $250
등록 마감 2017년 4월 14일
등록 문의 국제제자훈련원
dmmi@sarang.com 남가주사랑의교회 국제제자훈련원 T. 714 635 3000

둘로스선교교회가 최근 이전한 예배 장소에서 신년 축복성회를 4일간 개최했다.

둘로스선교교회 신년 축복성회…"하나님이 하십니다"

둘로스선교교회(담임 황의정 목사)가 예배 장소 이전과 신년을 겸해 축복성회를 5일~8일까지 개최했다. 평일 저녁과 주일 오후까지 총 4번에 걸친 집회에서 강사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창 41:16)'란 주제 아래 메시지를 전했다.

집회 동안 진 목사는 "삶의 초점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이동, 고정할 것"을 성도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셋째 날 집회에서는 '기도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란 설교에서 "캄캄한 밤중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희망을 불어넣은 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5~13절의 비유에서 응답받는 기도에 관해 강청하는 기도, 남을 위한 기도라고 가르쳐 주신다"고 설명했다. 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신앙의 실상은 성령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란 설교를 통해 그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행19:2)'고 묻는다. 오늘 바울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을 것"이라 말한 뒤 파라과이, 브라질 선교사로 20년 이상 섬기면서 목격한 성령의 역사를 간증했다. 특히 마약과 도박, 절망과 가난에 사로잡혀 있던 남미의 원주민, 한인 청년들이 성령을 체험한 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 큰 감동을 주었다.

한편 둘로스선교교회는 2004년 2월 황의정 목사가 11명의 성도와 함께 개척했다. 지난 12년 동안 LA를 복음화함과 동시에 황의정 목사가 내적 치유 사역을 활발히 펼쳐 수많은 이민가정의 회복을 도왔다. 황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으로 Ph.D.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미성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김준형 기자

노회원들이 부부동반으로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했다.

예장 미주합동 서부아메리카노회 신년하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 서부아메리카노회가 신년하례회를 9일 LA 한인타운의 한 호텔에서 개최했다.

예배는 박현동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신인석 목사가 기도하고 이 교단 총회장인 박등배 목사가 '엘로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후, 정규환 목사가 축도했다. 예배 후에는 노회원들이 돌아가며 덕담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친교하는 시간이 있었다.

노회장 최순길 목사는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올 한해도 노회 발전을 위해 섬김과 격려,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신년 연합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다.

(왼쪽부터)강양규 목사, 이규복 목사, 임문희 선교사.

새언약교회 신년 연합 특별새벽기도회

새언약교회(담임 강양규 목사)는 2일~6일까지 5일간 '기도로 세상을 주도하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새벽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성황리에 잘 마쳤다.

특별히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는 개교회 중심의 한 교회만의 특새가 아닌 같은 빌딩 안의 또 다른 교회인 에브리원교회(담임 이규복 목사)와 함께 신년을 기도로 열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요즘처럼 개교회 중심으로 흘러가는 시대에 두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특별새벽기도회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인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두 교회는 교단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같은 빌딩에 있다는 것과 기도해야 한다는 이유, 그 하나로 마음을 같이 했다.

강사로는 각 교회의 담임목사인 강양규 목사와 이규복 목사, 임문희 선교사(필리핀)가 각각 맡았다.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이규복 목사가 기도의 파워와 믿음에 대해, 둘째 날은 임문희 선교사가 기도의 장애물 제거에 대해, 그리고 셋째 날과 넷째 날은 강양규 목사가 기도로 세상을 주도하라는 주제로 각각 말씀을 전하며 참석한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제공했다.

한편 신년 연합 특별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이규복 목사는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 "보라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말로 너무나 큰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새언약교회 한 자매는 "매 시간마다 강단을 통해 들려오는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너무 많이 울었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한분만 바라보고 살아야겠다"라는 소감을 전해 은혜를 더했다.

*문의: 213-434-1083

*웹사이트: www.new2011.org

www.saseducation.weebly.com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학교, 어학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데이케어/프리스쿨, I-20신청, 연방인가, 온라인교육사이트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사랑나눔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창대장로교회(담임 이춘준 목사)가 새로운 장소에서 지역 사회 섬김봉사를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섬기며 사랑 나눠요"

새로운 장소(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로 이전한 창대장로교회(담임 이춘준 목사)가 이 지역 교회와 형제 자매, 그리고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창대장로교회는 사랑나눔선교회를 운영하면서 지역 사회 섬김에도 적극 앞장서 왔다.

사랑나눔선교회 나눔사역은 노숙자, 지역. 싱글엄마 등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7시~8시에 스낵(커피, 빵, 도넛 등)을 제공한다. 점심은 오전 11시~오후 12시까지. 장소는 3~4가 WaterMan Ave 에서 진행한다. 사역자(봉사, 기도, 반주자, 청년사역자)도 기다리고 있다. *문의: 951-966-9191

박은성 목사,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로 확정

박은성 목사가 신년 첫 주일에 나성영락교회에서 설교하는 모습.
ⓒwww.youngnak.com

박은성 목사(41)가 나성영락교회의 새 담임목사로 확정됐다.

나성영락교회는 8일 제직총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투표를 진행해 박은성 목사에 대한 청빙을 결의했다.

앞서 이 교회 청빙위원회와 당회는 이미 박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의한 상태였다. 해외한인장로회 교단법상 제직회 결의 과반 이상이면 담임목사 청빙이 가능하다.

노회로부터 위임목사 자격을 얻으려면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필요하다.

장로회신학대학교(Th.B.)와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콜롬비아신학대학원(Th.M.), 드류대학 신학대학원(Ph.D.)을 차례로 졸업한 박은성 목사는 PCUSA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현재 서울 명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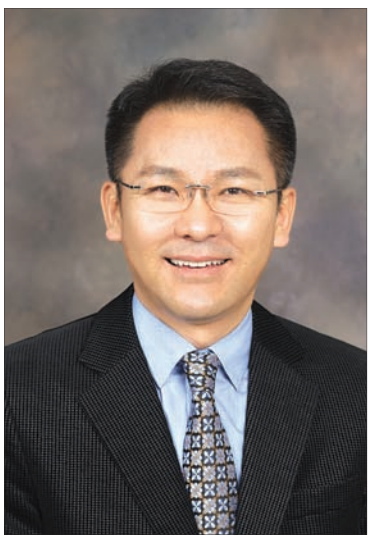
Jesus Healing Ministry

"1.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1~2)"

JHM영성 컨퍼런스를 통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균형잡힌 파워 크리스천으로 회복시켜주는… JHM 영성 컨퍼런스

◈대표 **여 캘빈** 목사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고전 14:4)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길 바람은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바람일 것이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먼저 성도 각자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잡힌 믿음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건강한 믿음생활을 위한 방법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교회 안팎에서의 수많은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통한 말씀 공부에 대한 열심만으로도 가능할까?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성경공부에 열심을 내도 심령의 갈급함으로 여전히 목이 타들어간다면, 그리하여 시원한 생수 한 모금이라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곧 열릴 제22차 JHM 영성 컨퍼런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상기해봄이 좋을듯 하다.

Jesus Healing Ministry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잡힌 건강한 믿음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사역이다.

이 사역이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2009년이다. 2010년 2차까지는 LA에서 열렸다. 그후 2017년 다시 이곳 LA 지역에서 열리기까지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사역의 대표인 여 목사가 본국 서울 관악구 신대방동에 지저스힐링교회를 개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역 중심지도 한국으로 옮겨가게 됐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 목사에게 주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품게 하셨다. 그래서 JHM 영성 컨퍼런스도 자연히 끊이지 않고 계속 열리게 됐다.

처음에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돕고자 시작되었지만 점차 그 지경이 넓어지면서 평신도 대상 영성 컨퍼런스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중국, 네팔,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의 지역으로 확장돼 나갔다. 그 만큼 JHM 영성 컨퍼런스가 균형잡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해주는 귀한 시간임을 반증해 준다.

"JHM 영성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 차원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방언통변을 통해 제 영의 간구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기도생활에도 열심을 내게 되었고, 겪고 있던 어려움들도 점차 풀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있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JHM 영성 컨퍼런스를 통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안개가 걷히는 것같이 선명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사역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역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오랜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고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JHM 영성 컨퍼런스가 얼마나 말씀과 영성을 균형있게 겸비한 사역임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특히 영적 세계에 관한 것들, 즉 방언, 방언통변, 예언, 영분별, 축사 등의 사역은 아주 탁월함을 확신합니다. 믿음생활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JHM 영성 컨퍼런스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이처럼 이 영성 컨퍼런스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회복 경험을 통해 건강한 믿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각 성도의 믿음이 건강해짐으로써 교회가 건강해지는 열매를 맺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준다.

여 목사는 원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 교회,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러던 중 중2 때 어머니를 따라 나선 기도원에서 방언 은사와 성령 체험을 한 후 방학이 되면 거의 교회에서 생활할 정도로 성전에서 지내는 것이 마냥 즐겁고 기쁘기만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의 딱딱한 장의자에 누워 잠자던 여 목사를 예수님이 친히 방문하셨다고 한다. 예수님은 여 목사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너는 미국으로 유학 갈 것이며 앞으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이 사건는 여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 일 할 것을 서원케 하였고, 절대 가능성 없을 것 같은 환경과는 상관없이 미국 유학의 꿈을 키워가게 했다. 그리고 1992년 1월 실제로 텍사스 달라스로 유학을 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경영학을 공부하여 물질로 섬기고자 했으나, 옛 서원의 기억을 잊지 않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 목사가 백기투항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리고 2005년 1월, 목회자는 말씀 붙잡고 성령충만해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정작 여 목사 자신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었다고 한다. 그러자 마치 투명한 유리컵 속 안의 내용물을 들여다 보듯 자신의 심령을 들여다 보는 영적 눈이 뜨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종류의 은사를 부어 주시는 축복까지 베푸셨다고 한다.

오늘날 여 목사가 균형잡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체험을 가능케 하는 JHM 영성 컨퍼런스의 파워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흘러 나오게 된 것이다.

기독교는 체험신앙이다. 내가 경험해야 한다. 나 지신이 거듭나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JHM 영성 컨퍼런스가 계속되어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영인 기자

▲제22차 목회자, 평신도 위한 JHM 영성 컨퍼런스

*일시: 1월 22일(주일) 오후 4시 ~1월 25일(수) 오후 4시까지 3일간
*장소: 빅베어 Pine Cres Christian Conference Center
*주소: 1140 Pine Crest Rd. Twin Peaks, CA 92391
*접수마감: 1월 17일(화)
*참가비: 250불
*준비물: 성경, 세면도구
*문의: 213-806-9990

OC목사회가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2017년을 힘차게 시작했다.

OC목사회 신년하례예배 드리며 2017년 시작

오렌지카운티목사회(OC목사회)가 3일 길벗교회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2017년 표어를 '목회자의 영성 회복'으로 정한 OC목사회는 올해 매달 셋째 수요일에 중보기도회를 열며 다양한 목회자 세미나, 영성 세미나, 연합예배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다.

신년하례예배는 김익현 목사(OC목사회장)의 사회로 시작돼 곽건섭 목사(CRC 한인총회장)가 '다윗의 번성과 축복'(대상14:13~17)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종대 장로(OC한인회장)와 김기동 목사(OC교협 이사장)는 축사로 각각 섬겼다.

축도는 이호우 목사(OC교협 회장)가 했다.

[자료제공: OC목사회 수석부회장 남상국 목사]

OC목사회가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2017년을 힘차게 시작했다.

2017년 소망소사이어티 예배와 함께 사역 시작

소망소사이어티가 5일, 2017년 시무식을 했다.

소망홀을 가득 채운 50여 명을 향해 이동진 목사(성화장로교회)는 '소망 살기가 예수 믿기'란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며 소망 사역에 동참할 때 행함있는 믿음을 보이자고 강조했다.

올해 소망은 오는 4월 말에 2박 3일 간 죽음전문지도자 교육과 포럼을 열 계획이며 11월 6일에는 인기가수 윤복희 권사를 홍보대사로 소망 우물 후원 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시무식에서 유분자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6개의 소망 우물을 빈곤국가에서 개발하며 현재까지 총 302개의 소망 우물이 개발됐음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유 이사장은 3명의 독지가가 보낸 2천 달러로 아프리카 차드의 어린이들에게 푸짐한 성탄 선물을 보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고도 보고했다.

RCA뉴욕한인교협과 뉴저지한인교협이 연합신년하례회를 가졌다.

RCA 뉴욕·뉴저지 한인교회 연합신년하례회

미국개혁교회(RCA) 소속 한인교회들의 모임인 AKRCA 뉴욕한인교협(회장 류승례 목사)과 뉴저지한인교협(회장 정광희 목사)이 9일 오전 11시 한인동산장로교회(담임 이풍삼 목사)에서 연합신년하례회를 열고 2017년의 힘찬 사역의 시작을 알렸다.

RCA 뉴욕한인교협과 뉴저지한인교협은 매년 신년하례회를 연합으로 드리고 친교를 나누며 새해 사역의 방향을 함께 공유해 왔다. 올해도 함께 모여 새해 덕담과 비전을 함께 나눴다.

미주 제63차 성경완독집회

3박 4일 동안 성경 66권 완독

신구약 66권 전권을 3박4일(약 50시간)에 통독하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마련된다. 이 시간은 성경 읽기가 재미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싶어지며,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훈련 시간이다. 본 성경통독과 암송훈련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힘입게 될 것이다.

*일시: 1월 23일(월)~26일(목)
*장소: 갓스윌연합교회
*주소: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등록비: 1인(70불), 부부(100불)
(숙식포함)
*대상: 말씀 사모하는 모든 사람
*문의: 909-268-4279
*주최: 미주요한선교단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이상훈 목사의 열방 이야기 1

열방을 향한 선교부흥을 꿈꾸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다. 한없이 부족한 자다.

선교부흥의 비전을 품고 2017년 대망의 새해를 새롭게 집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특별할 것 없는 듯한 이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음을 또한 고백한다. 그렇게 겸손히 머리 숙이는 마음으로 펜을 든다.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해 필자가 겪은 선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아니, 수많은 선교사들의 삶을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함이 앞선다고 함이 보다 솔직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진솔하게 그들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지면을 통한 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한폭의 그림을 그리듯, 필자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잡은 상념들, 깨달음, 그리고 만남과 나눔 등에 대해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감동과 느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그러한 필자에게 어느 누군가 "욕심을 부리지 마시오"라고 조언했다. 마음 속 깊이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것이다.

필자가 기독일보 지면을 통해 선교지 이야기를 나누며 갖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글들을 접하는 독자 성도들의 마음 한 구석에 잠자고 있던 선교지를 향할 수 있는 열정과 기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속의 모든 한인교회들이 1세기 전 우리의 선배들이 부르짖었던 '선교부흥'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더 회복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데 필자의 이 몸부림이 어쩌면 사하라 사막에 물 한 동이 붓는 것 같이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사 그리할지라도, 어린 다윗의 조그만 물맷돌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명중돼 승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담대히 전달하고자 할 것이다.

필자의 모든 사역과 집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지상 대명령'의 말씀임을 미리 밝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계속〉

현지 선교사를 격려하기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구원의 은혜보답의 지혜

누가복음 7:36~5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구원의 은혜는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평생 살아 숨 쉬는 날 동안 어떻게 보답하며 살 것인가 하는 지혜가 그 사람의 믿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대하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보답의 지혜는 우리 모두가 평생에 꼭 깨달음으로 지켜져야 할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상하게도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모셨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대접하기 위함이라고 누구나 생각하겠지만 본문의 내용전개로 볼 때 그렇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으며 훼방하고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구원얻어 하늘나라 가기위함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큰 화재거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 왔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본인도 궁금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 세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엎드려 간청하기를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면 잠깐 가서 물을 떠올테니 손발을 씻고 집 옆에 나무 그늘에 앉아 쉬시면 떡을 좀 만들어 오겠습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 사람들은 사막지역을 맨발로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디 앉아 음식을 먹으려면 손을 필연적으로 씻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본문 44절은 이러한 이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는 손과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혀 몰라봤다는 것이고 그저 한 번 불러들인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동료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관심이 집중되어 이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지 못한 듯합니다. 죄 많은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결코 집에 들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두 다리를 쭉 펴고 한쪽 팔꿈치로 땅을 짚고 귀에다 한쪽 팔을 받히고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처럼 비스듬히 누워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발치에 그 여인이 서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떨어질 정도로 울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게하는 신지식(GOD KNOWLEDGE. 神知識)을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오히려 죄 많기로 소문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행세하기 좋아했던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여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대상으로 택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죄악된 생활을 한없이 뉘우치고 후회하며 괴로워하면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대속해 주실 분은 이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오기가 난감했겠지만 용기를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없는 회개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여인의 생명같은 정절을 상징하는 머리털로 수건삼아 자기 눈물로 먼지와 범벅이 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면서 가지고온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단편적으로 잘못생각하면 마치 창녀가 사내를 유혹하는 것처럼 음란의 유혹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딸이라는 것과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여야할 사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이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받기 위한 가장 진지한 회개의 모습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시각에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 집의 주인된 바리새인이 생각하기를 소문대로 이 예수가 용한 선지자라면 모든 것을 미리 알아보는 사람일진데 자기 발치에서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고 있는 그 여인이 얼마나 죄가 많은 더러운 여인인지 모르지 않을 것인데 가만히 두는 것을 보면 뭘 신통하게 알아 보는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더 많이 탕감받은 자의 고마움이 더 클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판단이 옳다하시고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하십니다.

향유는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온몸으로 흘러내리면서 몸에 향유가 젖어들면 여러 날 동안 향내가 향기롭게 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 머리에 부을 자격이 없다는 겸손한 생각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정성과 죄 사함의 기대감에 죄 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한 행위적인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인의 행동을 마치 드라마처럼 세세하게 표현한 것은 그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속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다는 것을 두루 알게 하는 교훈을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마주 앉아 있었어도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 이 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용기와 진실한 회개, 눈물, 옥합을 깨뜨린 것과 입맞춤의 모든 정성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만을 통하여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진지한 회개가 예수님께 인정받아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바리새인과 같이 겉치레와 교회 안에서 감투 쓰기 좋아하고 우쭐대며 행세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잘 믿는 것이라는 타락한 인간의 잘못된 판단에 속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며 헌금하고 기도한다고 구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죄 많은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달아 그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가운데 영감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어지는 믿음을 얻게 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0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하십니다.

거룩함을 찾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은 자기 집 안방가지 모셨으면서도 그분을 통한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교만함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6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구원 얻은 이 여인과 같은 겸손함과 죄 용서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구원 얻었다 생각하는 분들도 더욱 성숙한 신앙을 위해 날마다 은혜보답의 지혜로 엮어가야 할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신앙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보답의 지혜가 지속적일 때 구원의 은혜도 계속 보장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은혜주심을 보답의 지혜로 계속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더 큰 은혜와 기대로 더 요긴하게 붙들어 써주시도록 후회 없는 신앙을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영광중에 결실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7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01 ESL 과정
- 친절하고 우수한 강사들이 학생들의 언어 레벨에 따라 지도하는 맞춤형 언어교육
- 미국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최적화된 언어교육 과정

02 학사(B.A.) & 교역학석사(M.Div.) 과정
- 교수의 95% 이상이 미국의 유수한 (신)학교에서 Ph.D. 학위 취득
- 다문화, 다인종 공간에 맞는 신학교육
- 경건과 학문에 기초한 선교지향적 신학교육

03 크리스천상담심리 석사 (M.A.C.C.P.) 과정
- 이론과 임상을 겸비한 전원 Ph.D. 학위 소지 교수진
- 성경과 복음적인 신학과 심리학의 조화로운 통전적 상담심리
- 현 시대에 맞는 크리스천 상담심리이론의 숙지와 실제적인 활용

04 5대 비전과 특전
- 학생비자 취득을 위한 I-20 Form 발행
-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교육국 승인 학교
- 인터넷만 있으면 원격강의로 전 세계 어디서나 학위과정 이수
- 교단 산하 북미주, 중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일본 등지에 흩어져 있는 470여 개 교회와 선교지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 본교 M.Div. 과정을 마친 후, 예장 통합 목사고시에 응시 가능

입학관련 문의
- 미국 1-562-926-1023 ext. 300 / office@ptsa.edu
- 한국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박정환 목사) : 010-6612-1165 / park27-42@daum.net
- 유럽 지역 대외협력 코디네이터 (주철현 목사) : 010-9086-2458 / diakonia@gmail.com

ESL 문의 및 상담
- 박동식 교수 (dspark@ptsa.edu)
www.facebook.com/SLCS.EPT

※ 전 세계 21개 지역노회로 구성된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신학교인 본교를 졸업하면 본 교단 목사고시는 물론 예장통합(PCK) 목사고시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안수 받은 뒤에는 협력교단인 예장통합과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노회로 이명이 가능합니다.

I-20 발행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후보

www.ptsa.edu

* 영주권, 시민권 소지 B.A. 학생들은 연방정부 교육국으로부터 무상으로 학자금 지원 (졸업 후 상환하지 않음)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총 장 이상명 박사 이사장 박성규 목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 Fax. (562) 926-1025 / office@ptsa.edu

담임목사 청빙

1974년 11월 24일 미조리 세인트루이스에 설립 된 본 교회는 성도들이 형제처럼 서로 의지하며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기를 노력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 가기를 소망하는 그 무엇으로도 포장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는 참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1. PCA 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신학대학원(M. Div)를 졸업하고, 3년 이상 목회 경력이 (부목사 포함) 있으신 분으로 55세 이하
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4.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 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졸업증명서 및 안수 증명서 각 1부
3. 자기소개서(성장배경, 소명, 목회경험, 가족소개) 1부
4. 목회 계획서 1부
5. 최근 6개월내 설교 2편(DVD, 영상 File)

서류제출 마감일 : 2017년 1월 15일(주) 소인 까지

제출처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세인트루이스 한인제일장로교회)
(Attn : 청빙위원회) 3350 Adie Rd. St., Ann, MO 63074
E-mail : stlfirstch@gmail.com

기타사항

1. 제출 서류는 상기 주소로 일반 메일과 이메일로만 접수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은 개별 통지 합니다.

세인트루이스 제일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http://www.stlfkpc.or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GBC 미주복음방송 사장 모집 공고

지난 25년간 오직 예수님만 전하며, 주 7일 24시간 복음이 선포되는 미주 최대의 한인 기독교 라디오 방송사GBC 미주복음방송 사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많은 분들의 응모를 바랍니다.

1. **공모직위 및 인원** : 사장 / 1명
2. **임기** : 선임일로부터 3년
3. **주요 직무수행 조건**
   -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하며, 회사의 경영 전반을 통할 할 수 있는 분
   - 방송 및 미디어 사역에 전문성을 갖추고 급변하는 선교환경에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유지 할 수 있는 분
4. **지원자격**
   - 크리스챤으로 도덕과 신앙을 통한 공적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 분
   -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리더쉽, 전문성, 위기관리 등)을 갖추신 분
   - 방송선교에 대한 비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영마인드와 윤리관을 갖추신 분
5. **지원서류 및 접수**
   - 접수 기간 : 2017. 1.1. - 2017. 2. 10
   - 접수 방법 : 우편메일(PO Box 6857, Buena Park, CA 90622)
   - 접수처 : 미주복음방송 이사회 사장 청빙위원회 앞
   - 제출서류 *지원서(사진부착) 1부
     *자기소개 및 신앙고백서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운영계획서 및 비전
     *추천사유가 기재된 추천서 2부
6. **지원서류 접수방법**
   -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시어, 우편으로 메일하시면 됩니다.
7. **심사방법 및 후보자 결정**
   - 1차 서류 심사(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차 면접 심사
   - 최종후보자 결정 및 통지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허위 판명될 경우 및 도덕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선임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미주복음방송 714-484-119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BC 미주복음방송 AM1190 igbc.net

●조일구 칼럼

물질주의와 세속화에 찌든 오늘의 한국교회

조 일 구 목사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최근 한국의 모 신문 기사를 보니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중대한 선결과제를 '물질주의'라고 꼽는다 했다. 부연하면, 한국의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 언론 기자들(한기언)의 인식조사 결과 한국교회의 최대 선결과제의 44.4%가 '물질주의와 세속화'요, 그 다음 34.2%가 '목회자의 자질 문제'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렇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갑론을박 문제의 가장 큰 중심에는 분명히 돈과 세속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 교회 지도력 문제의 중심에도 돈과 세속화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것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자들의 관심 역시도 결국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그 중심에 있다. 성경은 분명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딤전 6:10)라고 말씀하지만, 교회 문제의 중심에 돈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최고 관심 역시도 돈에 대한 집착인 것이다.

퇴니스(F. Tonnis)는 그의 명저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Gemeinschaft und Gesellschaft)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과연 무엇인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정의해주고 있다.

인간의 유대관계는 언제나 '자연의지와 합리의지'에 따라 공동체로 발생하게 되는데 '자연의지'는 '게마인샤프트'를 가능케 하고 '합리의지'는 '게젤샤프트'를 발생케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즉 혈통과 우정으로 엮어진 공동체는 '게마인샤프트'요, 거래 타산적 유대관계에 의한 공동체는 '게젤샤프트'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돈 때문에 그토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 교회 신앙 공동체의 정체는 과연 '게마인샤프트'일까? '게젤샤프트'일까?

'게젤샤프트'적 교회는 언제나 맘모니즘 '물량주의'적 가치관에 빠져서 물질지향의 세속가치들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가 결국은 맘모니즘의 물신(돈)에 의해 비난의 나팔을 불고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것이다.

교회는 결국 '비즈니스 마인드'의 세속가치에 의해 그 의미와 목적을 두는 천박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게 당연하다.

교회가 결국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와 잣대로 인한 비 신앙적 수단들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더구나 교회가 세상과 사회 공동체를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책임에는 엄두도 못 내게 되고, 오히려 교회의 우물 안에만 갇혀서 '기존의 질서'안에서 힘겨루기에 전력하거나, 서로에게 상처만 안기는 우를 범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교회 공동체로 인해 교회가 정녕 '게마인샤프트'가 '게젤샤프트'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세상으로부터의 신랄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한국 교회들이여, 아니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구성원들이여! 남의 눈의 티끌을 보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 눈의 들보를 바라보며 옷을 찢고 마음을 찢기로 하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우리 모두는 정녕 주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살아가는 죄인들일 따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 3:10)는 이 사도가 외친 절규를 처절하게 가슴에 새기며 살기로 하자.

구체적 목표 설정을 통한 성장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신다.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잘 성장하는 것이다. 자녀의 성장이 멈출 때 부모는 마음 아파한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멈추는 것을 볼 때 슬퍼한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하신다. 성장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성장한다는 것은 자라는 것이다. 성장한다는 것은 뻗어나가는 것이다. 성장한다는 것은 성숙하고 원숙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한다는 것은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장은 의도적이다. 성장은 자신이 성장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함으로 시작된다.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된다. 성장을 선택하고 도전해야 한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고 실행에 옮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어떤 목표는 달성하지만 어떤 목표는 작심삼일, 며칠이 못가서 포기하는 것을 본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를 포기해 버릴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롭지 않다. 목표를 세웠다가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세운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나온 인생 여정에서 상당히 많은 목표를 달성해 본 경험이 있다. 우리는 바로 그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거듭 다시 도전해야 한다. 어떤 목표는 쉽게 이루어지지만 어떤 목표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걸쳐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슴에 씨앗처럼 품고 살다보면 어느 날 문득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한 후에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진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필자의 경험을 조금 나누고자 한다.

첫째, 강렬한 소원이 담긴 목표가 좋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강렬한 소원이 감추어져 있다. 그 소원을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빌 2:13).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한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중에 강렬한 소원을 발견해야 한다. 소원이 강렬할수록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목표는 구체적인 관심에서 나온다. 구체적인 목표가 구체적인 결과를 낳는다. 초점이 분명하지 않은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애매한 목표는 애매한 결과를 낳는다.

셋째,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기록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기록할 때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기록하는 순간, 그 목표는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가능한 글로 기록한 구체적인 목표를 자주 읽도록 한다.

또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한다. 그때 하나님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서 도와주신다.

넷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목표가 성취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아주 중요하다. 구체적인 계획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의미한다. 계획을 실천에 옮길 때는 작게 나누어 시도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거대한 목표도 작게 나누어 실행에 옮기면 얼마든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끈기를 갖고 거듭 도전하도록 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때 우리는 신비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성장본능을 넣어 주셨다. 그런 까닭에 사람은 성장할 때 기쁨이 충만해 진다.

성장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성장은 배움을 통해서 주어진다. 배우기에 늦은 나이도 없다. 새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자.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자.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자.

새해를 맞이해 하나님의 차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길 빈다.

●정운길 칼럼(10)-끝

항상 웃는 좋은 인상의 주인공이 되자

정 운 길 선교사
실버선교회 국제대표

필자가 한국 서울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의 일이다.

수업이 끝나자 한 학생이 쪼르르 따라오면서 "선생님, 교과서에 없는 질문을 해도 돼요?" 대개 고3 학생들은 자신이 공부하다 잘 모르는 어려운 문제를 수업 후에 질문하는 것이 일상인데 교과서에 없는 질문이란다.

"뭔 대?" 물으니 "선생님, 무엇이 그렇게 늘 즐거우세요?" 엉뚱한 질문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질문을 갖고 용기를 내서 찾아온 아이가 기특해서 "너, 참 훌륭하다. 내가 가르치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유독 네가 그 질문을 하니 대단하구나!" 라고 칭찬을 해 주니까 "선생님, 이 질문은요 저 혼자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반 애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대표로 왔어요. 선생님 답변을 듣고 가서 전할 거예요."

"그래, 지금은 그 이유를 말해줄 시간이 없으니 종례 후에 도서실로 와라"

그 아이는 그날 저녁에 내가 기쁜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반에 가서 영어 선생님이 기쁜 이유가 예수님 때문임을 전하고 자신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선생님의 미소 때문인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좋든 나쁘든 우리의 인상을 그들에게 심어놓게 된다. 관상은 선천적 유전자인 DNA 때문이고, 인상은 후천적으로 전적인 나의 책임이다.

관상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좋은 인상은 '웃는 얼굴'이고 나쁜 인상은 웃음이 없는 '찡그린 얼굴'이다.

인상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들의 공통점이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잘 웃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금년 한 해 항상 미소 띤 얼굴로 잘 웃으면서 좋은 인상을 상대방에게 남겨 성공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한다.

JESUS HEALING MINISTRY

제 22차 / 목회자, 평신도를 위한

JHM 영성 컨퍼런스

간증사례

유○○사모/ LA
저는 두 번의 직장암 수술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암이 재발되어 두 번째 수술할 때는 직장의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채 봉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3개월에 한 번씩 MRI, CT Scan, 피검사 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 캘빈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바로 그 날, 잠을 자는데 어떤 큰 손이 나의 직장과 대장을 밖으로 꺼내어 물로 깨끗히 씻어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후 7년이 지난 지금에는 전문의로부터 나는 더 이상 암환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고, 더 이상 매년의 정기 검진이 필요 없다고 의사로부터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치유 받음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어떤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 밖에 없었던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저는 평생 JHM 사역을 도와서 나와 같이 불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미선 자매/ 사랑의 교회. 서울 서초구
오랜 믿음생활에도 저의 신앙은 겉돌았으며 게다가 결혼 9년차 임에도 아이가 없었고, 시험관 아기를 세 번째 시도해봤지만 실패했고,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져서 저는 이것이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혼을 고려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때 여 캘빈 목사님에게 상담과 기도를 받은 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 차원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방언통변을 통해 제 영의 간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기도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시험관 아기를 4번째로 다시 시도하고픈 마음이 들어 실행에 옮긴 결과 지금은 임신 19주째의 건강한 딸 아이가 제 속에서 자라고 있답니다. 캘빈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집사/ 대학교회. 서울
저는 원인 모를 어지럼병으로 몇 년 동안 누워서만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 때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오랜 시간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내 안에 무당의 악한 영으로부터 짓눌려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축사를 통해 악한 영이 쫓겨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있는 신앙 생활 했음에도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저에게 목사님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이제는 말씀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안개가 걷히는 것같이 선명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 캘빈 목사님의 성령 사역은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김○○목사/ LA 사역자
저는 지난 5년여 동안 아주 심한 변비로 인해 배는 임신 10개월처럼 나와 있었고 늘 고통을 받아왔었는데 지난 11월 19일에 캘빈 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완전 치유를 받게 되어 지금은 이전과 같은 변비로 인한 고통없이 지내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캘빈 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영성 컨퍼런스에서도 크신 역사와 치유 그리고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임동언 집사/ 서울. 4차~16차 집회 참석자
저는 본래 무신론자로서 살다가 예상치 못했던 사업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몸까지 아파서 자살까지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소개로 목사님을 만나 상담하고 JHM 영성 집회를 꾸준히 참석한 결과 지금은 건강과 일 그리고 제정문제까지도 회복되었으며, 나의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늘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LA서 열리는 영성 집회에 꼭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 캘빈 목사님이 잘 도와드릴 겁니다.

데니얼 아빠/ 집사. 서울
50대 중반의 사업가로서 저는 사업상 여러 번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믿음 생활은 항상 겉돌았고 사업은 내 머리와 힘으로만 했기에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을 만나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또한 저를 위한 예언사역을 통해 신앙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제 삶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성공해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기도해 오던 삶의 우선 순위가 어느덧 바뀌어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노력했으나 되지 않았던 일들이 술술 풀리면서 지금은 사업이 미국, 중국, 동남아로 진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제 저의 목표는 JHM의 곡간을 채워서 작은 교회 목회자와 세계의 선교사들을 영적으로 돕고자하는 목사님의 비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쓰임 받는 것이며, 저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힘으로만 사업하며 고생하는 사업가들을 이 사역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저를 제정적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드보라 김 사모/ LA 사역자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켜본 여 캘빈 목사님은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항상 겸손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언제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귀한 사역자입니다. 이전에 제가 많이 지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 때 5살 아이로 보이는 제 어린 시절의 모습과 그 옆에 예수님이 저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게 되었어요. 제 어린 시절은 온 가정이 불교에 심취해 있던 때였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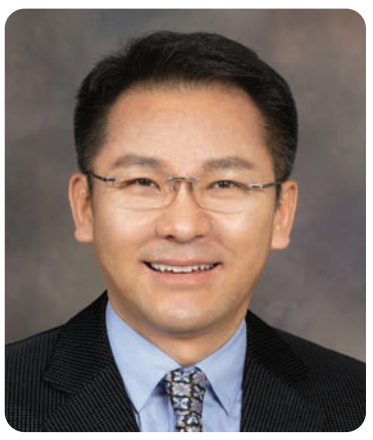
권세능 목사/ 주천성교회 담임. 경기도 평택
올해 8월 여 캘빈 목사님 초청 영성 부흥회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가졌던 그 어느 집회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집회였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오랫동안 사모했으나 받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에게서 방언이 터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또한 세밀하고 정확한 방언통변을 통해서 성도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집회는 영적 침체기에 빠져서 목회를 중단하려 했던 저를 변화시켜 새로운 사역자로 거듭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성 사역자가 여 캘빈 목사처럼 지적이면서도 성경 말씀에 깊이가 있고 은사를 성경적으로 균형있게 잘 활용하는 분을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영성 사역자로 귀하게 쓰시는 신실한 종입니다.

이상목 목사/ 이어리한인교회 담임목사
저희 교회에서의 두 번에 걸친 부흥집회를 통해 성도들의 오랜 영적인 문제가 해결 받고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여 캘빈 목사님은 말씀과 영성을 균형있게 겸비한 사역자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적 세계에 관한 것들 즉 방언통변, 예언, 축사 사역은 아주 탁월합니다.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므로 JHM 영성 컨퍼런스에 참석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1-2]

주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잡힌 파워 크리스챤으로의 회복"



주강사 여 캘빈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소속
- 내적치유 사역자 (신유, 예언, 축사, 방언, 방언통변)
- 영성집회 인도자 (미국, 한국, 중국, 유럽, 서남아 등)
- Kunsan National Univ.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BA
- Miju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M.Div
- Criswell Theological Seminary MA 2yrs. <Dallas, TX>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A 2yrs.
- Grace Theological Seminary MA <Indiana, OH>
- Grace Theological Seminary Dr. of Missiology Candidate <Indiana, OH>

할렐루야!!

제 22차 'JHM 영성 컨퍼런스'를 미국에서 열게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행해 온 지난 21차에 걸친 'JHM'을 통하여 많은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통해 은혜의 회복과 은사를 경험한 후 변화되어 각자의 지역 교회에서 신실한 일군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나 온 JH Ministry를 통해 말기 위암 환자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옛 자아, 죄 그리고 질병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실 제 22차 'JHM 영성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박 4일 동안 본 집회에서는 성경적인 신유, 예언, 축사, 방언, 방언통변 등의 은사들을 정확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의 성도에게는 자유함을, 갈급한 영혼에게는 생수와 같은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2017년 새해에 JHM 영성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분의 영성과 믿음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십시오.

- 컨퍼런스 일시 : 2017년 1월 22일(주일, 4 pm) ~ 1월 25일(수, 4 pm) 까지 3일간
- 장소 : 빅베어 Pine Crest Christian Conference Center
- 주소 : 1140 Pine Crest Road. Twin Peaks, CA 92391
- 접수 마감일 : 2017년 1월 17일
- 참가비 : 250불
- 준비물 : 성경, 세면도구

JHM 초청대상

- 육체적인 질병과 씨름하며 고통중에 있는 분
-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지로 절제할 수 없는 각종 중독(마약, 술, 도박, 음란) 등으로 고민하는 분
- 복잡한 문제에 얽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분
- 영적 세계에 눈은 열렸지만(예언, 영분별 등) 분간이 잘 되지않아 짓눌려 있거나 궁금한 분
-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분
- 방언을 하지만 확신이 없거나 방언은사를 사모하는 분
- 진정한 영적싸움과 그 승리의 원리를 알기 원하는 분
-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성경적인 돌파구를 찾기 원하는 분
-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자아문제와 신앙성장 문제에 걸려 고민하는 분

JESUS HEALING MINISTRY | 주소: P.O. Box 74069, Los Angeles, CA 90004 문의전화: 213.806.9990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교연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위해 앞장설 것

한국교회연합…2017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 가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이 지난 6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2017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를 갖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회원교단 및 단체 대표 50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한교연은 올 한해 주님 안에서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큰 교단은 작은 교단을 배려하고 작은 교단은 큰 교단을 존중하면서 서로 가슴을 열어 손 잡아주고 양보와 협력의 아름다운 연합의 본을 보임으로써 교회 일치와 연합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의 심판대 위에 올리는 참담한 시대적 상황을 맞고 있으며 곧 있을 대선에서 우리들은 이같은 불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겸허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때에 우리 한교연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살리는 구심점이 되어 사회 앞에 선지적 메시지를 선포하고 한국교회로 하여금 하나되어 건강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도록 디딤돌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올 한해 한교연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서 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보다 역점을 두고 나아가고자 한다"며 "대사회, 대국가적으로 한국교회의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단사이비와 안티 기독교 세력의 도전에 든든한 방패가 되어 교회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예성 총회장 이동석 목사의 사회로 정완득 목사(개혁종로 총회장)의 기도와 부서기 이명섭 목사(기성)의 성경봉독, 테너 김승일 씨의 특별찬양에 이어 이성희 목사(통합 총회장)가 '개혁의 해의 교회'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오영자 목사 합동개혁 부총회장), '민족복음화와 평화통일을 위해'(최규석 목사 한영 총회장), '세계선교와 선교사를 위해'(박요한 목사 법인이사), '본회 회원교단과 단체를 위해'(김국경 목사 합동선목 총회장) 각각 특별기도하는 순서를 가졌다.

이어 정서영 대표회장의 인사, 김요셉 목사(초대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증경대표회장)가 신년격려사를, 양병희 목사(증경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직전대표회장)가 각각 신년축사를 전하고 석광근 목사(예성 증경총회장)의 신년메시지 낭독에 이어 박위근 목사(증경대표회장)가 축도했다.

2부 하례식은 선교교육국장 최귀수 목사의 사회로 임원과 교단장 단체장 총무들이 다함께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떡을 자르는 순서로 마련됐다.

김진영 기자

KWMA 신임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가 당선 소감과 각오를 밝히고 있다.

KWMA, 신임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 선출

한국교회 선교의 세계화에 앞장설 것

9일 사랑의교회 비전센터에 열린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제27회 정기총회에서 조용중 선교사가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조용중 선교사는 GP선교회 미주본부를 설립하고 미주대표, 국제대표, 연구개발원장 사역을 했으며 현재 글로벌호프 대표를 맡아 활동하면서 동시에 창의적 사역을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9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총회는 재적 총 206명 중 출석 95명, 위임 27명 등 122명이 참석했으며, 조용중 선교사가 출석인원의 과반수(48표) 이상인 67표를 받아 신임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조용중 선교사(63)는 한국교회 선교운동의 재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한국교회 선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사무총장 임기는 4년이다.

조용중 신임 사무총장은 현시점에서 동양과 서양의 선교학자들을 탁월하게 연결하며 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한국의 선교 지도자로 손꼽힌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선교신학자 랄프 윈터 박사와 교제하며 제3세계 선교운동에 함께 기여했을 뿐 아니라,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선교신학자 조동진 박사와도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 영성을 물려받아 비서구 세계 선교운동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GNMS(Global Network of Mission Structures) 국제총무로 섬기며 선교의 글로벌 네트워크 사역에 앞장서고 있다. 이지희 기자

"(가칭)한국교회총연합회 출범, 제3의 단체 아냐"

한기총 · 한교연의 연합단체 아닌…모두 아우르는 총연합회

(가칭)한국교회총연합회(이하 한교총)가 출범했다.

출범감사예배는 9일 오후 서울 정동제일교회(담임 송기성 목사)에서 드렸다. 이종승 목사(예장 대신 총회장)의 사회로 전명구 감독회장(기감)의 환영사, 여성삼 목사(기성 총회장)의 기도 후 김선규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가 '하나됨의 힘'(에베소서 4:1~6)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선규 목사는 "이 시대는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 올해, 한국교회는 대선 또한 앞두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하나돼 분명한 기독교적 입장을 말해야 할 때다. 물론 그 동안 한기총과 한교연이 많은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더욱 힘을 합해 결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라고 했다.

앞서 전명구 감독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교총의 출범은 한국교회 대표 교단들이 참여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제3의 단체'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것이 결코 그 역사적 의미를 훼손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에는 배굉호(예장 고신 총회장)·최칠용(예장 합신 총회장)·이승헌(예장 개혁 총회장) 목사가 특별기도를 인도했고, 이성희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모두 마쳤다.

이어 2부 출범식은 이영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기하성 여의도 총회장)의 경과보고와 유관재 목사(기침 총회장)의 선언문 낭독 후 전용재(기감 직전감독회장)·최성규(국민대통합위원장)·채영남(한장총 대표회장) 목사 등이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다.

한교총은 이날 지난해 12월 22일 발표했던 선언문의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즉 △한기총의 7.7정관을 기본틀로 한다 △한기총·한교연 소속 교단 중 7.7정관 이전 가입 교단과 교단장회의 회원 교단(23개)을 포함한다 △7.7정관 이후 가입한 교단은 재심한다는 것이다.

이영훈 목사는 경과를 보고한 후 "한교총은 한기총과 한교연의 연합단체가 아니라 한국교회 모두를 아우르는 총연합회"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 해외파송 선교사 2만 7,205명

KWMA "한국선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뛰어야 할 때" 강조

[1면으로부터 계속]KWMA는 또 "크게는 244명부터 적게는 1명까지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체 선교사 수가 작년과 변함없는 것은 줄어든 선교사의 자리에 신임 선교사가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WMA는 "한국선교가 질적 성장을 위한 기경을 시작하면서 다시 멀리 뛰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한국 선교사 파송이 꼭짓점을 찍고 이제는 내려가는 것인가에 대한 결론은 2017년을 지켜보고 나서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수치상으로 보면 한국교회의 탄력성이 떨어진 것은 확실하다"며 "한국교회의 탄력성 부분은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이너스 증가를 한 곳은 대부분 선교단체였는데, 단기선교사 기간 종료, 개인 이유로 선교사 연장을 못 하는 현상이 교회의 재정 지원이 중단되거나 감소된 것과도 상당히 관련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은퇴 선교사 증가, 선교동원의 어려움, 선교사 멤버케어 부족, 인구 고령화, 교회의 선교 열정 감소 등도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KWMA는 "교단 선교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정화를 시작한 선교단체들도 양적 성장을 하려면 '선교 중심의 건강한 한국교회'로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타겟 2030(Target 2030, 2030년까지 10만 선교 정병 파송)의 제3기 '전력투구기'에 선교사 수가 예년과 같은 수로 집계된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와 선교계가 정말 선교에 전력투구해야 함을 말해주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뛰라는 도전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고별사 전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abc방송 영상 캡쳐

미국은 하나로 뭉쳐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오바마 고별연설…Yes We Can, Yes We Did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미국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하나로 뭉쳐 미래를 향해 전진하길 바란다"며 지난 8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고별 연설을 했다.

이날 대형 컨벤션센터인 맥코믹 플레이스에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중들이 함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고별 연설에서 "미국은 서로 다른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였다"면서 미국민의 단합과 국가의 발전을 당부했다. 그는 2009년 취임 당시 금융 위기와 이라크·아프간 전쟁 등 안팎의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미국이 더욱 존경받는 나라가 된 것은 "미국민 여러분 덕분이었다"며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년 동안 미국은 더 강해지고 번영을 이뤘다. 변화와 진보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미국민 여러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제 삶의 특권이었다"며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거듭 강조했다.

또 그는 평생 동반자인 아내 미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때는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고 목소리를 높인 후 "우리는 해냈다(Yes We Did)"고 말한 후 다시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는 자신의 지난 선거 구호를 외치며 고별사를 마무리했다,

이영인 기자

美기부천사 찰스 피니, 모든 재산 사회 환원

9조원 기부했지만…정작 자신은 임대아파트에 살아

찰스 F. 피니

ⓒ자료사진

지난 35년 동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남 모르게 무려 9조 원을 기부하면서 '자선사업의 제임스 본드'로 불렸던 면세점(Duty Free Shop)의 창시자이자 아틀란틱 필란트로피 재단의 설립자 찰스 F 피니(Charles F. Feeney·일명 척 페니)가 지난해 말 700만 달러(한화 약 83억 원)를 대학에 기부하면서 마지막 재산의 사회 환원을 마치며 또 다시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 피니가 모교인 코넬 대학에 후원금을 내놓으면서 전 재산 기부 약속과 함께 "살아있을 때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한 그의 소원도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올해 85세인 피니는 1982년부터 익명으로 기부 활동을 해왔으며, 지금까지 약 9조 5천억 원의 개인 재산을 사회 환원했다.

익명을 고집했던 그의 기부 활동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그의 사업체가 분규에 휘말리면서 회계 장부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장부 조사 과정에서 엄청난 기부 명세가 드러난 것이다.

아일랜드계인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항면세점 체인을 설립하면서 큰 돈을 벌었다. 1984년 면세점 체인 지분 38.75%를 포함해 전 재산을 자신이 설립한 '애틀란틱 재단'에 넘겼다.

재단 재산은 그가 투자한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신생 정보기술(IT)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크게 불어났다.

피니는 평생 기부에도 5년여 전인 81세 때 남은 재산이 15억 달러(약 1조 7천억 원)에 달하자, 이를 2016년까지 모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기부로 그는 공식적으로 전 재산을 사회 환원했다.

피니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부인과 함께 살면서 이동할 땐 버스를 타고, 비닐 가방에 책 한 권을 넣고 다니는 단출한 생활을 하고 있다. 뉴욕에 살 때는 맨해튼 변두리의 허름한 식당에서 햄버거를 즐겼다.

장세규 기자

내 아이, 몇 살부터 교회 데려가면 좋을까?

빌리 그래함…나이 상관없이 교회에 데려올 수 있다

빌리 그래함 목사

ⓒ빌리그래함전도협회

"아이를 교회에 데려갈 적정 나이는 몇 살일까요?" 한 여성이 빌리 그래함 목사에게 던진 질문이다.

그녀는 "부모님은 제가 10대가 될 때까지 교회에 데려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우리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5살 된 제 딸은 벌써 하나님에 대해 묻기 시작해요. 아이가 교회에 데려갈 만큼 성숙한 걸까요?"라고 물었다.

빌리 그래함 목사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데일리뉴스'(Daily News)에 관련 질문을 소개하고 "아이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교회에 데려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당신께 나아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어린 아이들도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어린 아이들도 다른 이들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상으로 가치있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 아이들도 부모가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있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도 놀랍지 않다"고 했다.

그래함 목사는 그러면서 "부모는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잘 받아주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의 질문에 단순하면서도 진실되게 대답해줄 책임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는 종종 깊고 심오한 대답을 원하지만, 아이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임을,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고 싶어한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하늘에 갈 수 있다"며 "교회가 가족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인다면, 아이들은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주일감사예배 : 주일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 저녁 8:00 새벽기도회 : 오전5:30(월~금)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새언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3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65-9693, (213)434-1083 www.new2011.org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공동체, 성령공동체, 선교공동체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92405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 네이버 지식인

필리핀 '블랙 나자렌 축제' 열려

필리핀 기독교인들…매년 1월 9일 '검은 예수 그리스도' 들고 거리 행진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9일(현지시간) '블랙 나자렌 축제'가 열렸다.

매년 1월 9일 필리핀 기독교인들은 마닐라의 키아포 성당에 안치된 성상인 '블랙 나자렌'(Black Lazarene)을 들고 거리를 행진한다.

'블랙 나자렌'이란 말 그대로 검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필리핀 마닐라 키아포 성당에 안치돼 있는 예수 성상을 가르킨다. 이 조각상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얼굴이 검게 변해 블랙 나자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참석자들은 철야기도 및 성찬식 참여 후 '블랙 나자렌'을 들고 행진한다.

블랙 나자렌 축제는 수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명성을 떨친 성상이 성당에서 나와 거리를 행진하는 날로, 이 행렬을 보기 위해 필리핀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1,0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마닐라를 찾는다. 약 100만 명의 참석자들 가운데 약 80%가 로마가톨릭교인으로, 이 성상의 신비로운 힘이 건강과 부를 가져다준다고 믿고 있다.

가톨릭뉴스통신(CNA)은 "이번 축제는 필리핀 가톨릭 교인들의 열정, 치열함, 믿음을 상징한다"고 전했다.

일부 서양 국가들은 "축제의 진행 과정에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지역 내에서는 휴대폰 이용서비스가 차단됐으며, 드론이나 폭죽 등의 사용도 금지됐다.

강혜진 기자

대만, 동성애 옹호 총통·동성애 옹호 국가

'성적지향 전환치료' 금지 및 '동성결혼 합법화' 유사 법안 통과될 듯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대만 총통부 홈페이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당선된 후, 대만이 1년도 안 되어서 동성애 옹호 국가가 됐다. 이는 가정 중심성이 강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 있는 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까 심히 우려가 되고 있다.

먼저 최근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위생복리부가 조만간 '성적지향 전환치료'를 금지 의료행위에 추가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위생복리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발의된 "의사에 의한 성적지향 전환 및 치료 행위는 의사법 제28-4(1) 조1에 의거, 집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향후 두 달 동안 의견 수렴의 기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위생복리부 스총량 의료국장은 1월 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 법안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이를 어기면 10~50만 위안(1,750~8,753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며 의료행위 제한 및 1개월~1년의 의료업 정지 혹은 취업면허 폐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한 상황으로 판단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한다.

또 지난해 12월 26일에는 대만 입법원 상임위원회가 유메이뉘 민진당 입법위원이 발의한 민법수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혼인은 남녀 간 서로 결정 한다'는 기존 민법 조항의 '남녀'를 '쌍방'으로 수정하는 방식이다. 동성결혼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동성결혼 합법화와 다름없다. 이 법안은 대만의 국회 격인 입법원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법제화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난 1986년 대만에서는 동성애자 치자웨이가 동성결혼을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한 이후 유사한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한편 지난해 1월 중순 대만 총통으로 당선된 차이잉원 총통은 총통 후보 3인 가운데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지지했던 후보였다.

홍은혜 기자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북한' 15년째 1위

북한 내 지하교인 색출 및 조중접경지역 사역자 테러 위협 여전

[1면으로부터 계속] 특히 "작년은 조중 국경지역의 경색과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고, 한충렬 목사님의 사망과 이와 연관된 조선족, 북한 성도들의 피해가 상당했다"며 "국경지역 사역자, 선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테러 위협이 있었으며 교회 및 선교단체와 연결된 탈북민 출신 한국인들이 납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오픈도어는 최소 60여 명의 조선족 목회자, 탈북민 출신 및 한국인 사역자가 납치, 테러 의심 사건 등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되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책적으로도 북한 내부에서 십자가 마크 반입을 규제하고 내부 기독교인 색출작업이 이뤄졌다는 증언들이 있었다"며 "더하기(+) 표시도 주의시키는 일 등은 다른 말로 북한에서 십자가 표시를 기독교 상징으로 이해하고 복음을 연결시키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 복음 전파가 이뤄졌을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향후 북한 전망으로 조중 국경 통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월경자 사역은 계속 위축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오픈도어는 "그러나 작년 두만강 홍수 등으로 국제지원단체들을 중심으로 원조가 진행되는 등 직간접적 접촉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많은 탈북민이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보기관에 의한 각종 테러 위협은 여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도어는 "작년 11월경 북한 정보기관이 최소 10여 명 이상의 특별히 훈련된 요원을 탈북자로 위장하여 동북 3성 지역에 파견한 정황이 있다"며 "이 때문에 이전에 발생한 독침 테러나 교통사고를 위장한 각종 사고 등 다양한 테러에 대한 굉장한 주의가 계속 요구된다"고 밝혔다.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 북한 여성의 강제 송환도 심각한 문제라며 "각종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사드 문제 등으로 북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강제 송환 빈도수가 증가하고 처벌도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중국 사람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10년 이상 잘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은 거의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작년에는 10년 이상 잘 살고 있던 여성도 강제 송환됐다"며 "강제 송환 숫자는 수십 명으로 확인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수백 명이 북송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또 "조선족 사역자나 선교사 등을 통해 예수를 영접한 상당수 탈북 여성들이 북송되어 고문 절차 등으로 기독교인인 것이 발각될 경우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기독교 박해뿐 아니라 민주화 지수, 경제 자유화 지수, 언론의 자유 등에서 전 세계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는 테레사 메이 총리. ⓒParliament.tv

교회가 '나누는 사회' 조성에 핵심적 역할 해야

英 메이 총리…자선위원회 강연서 비전 제시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가 "'나누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영국 복음주의연맹'(UK Evangelical Alliance, EA)이 전했다.

9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자선위원회 강연에서 테레사 메이 총리는 불공정을 막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약속하는 등 중요한 정책을 전달했다. 이는 '나누는 사회' 건설을 위한 비전의 일부분이다.

메이 총리는 "이러한 접근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나의 신조는 '삶에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단순히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해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방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새로운 철학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복지를 제공하는 단순히 전통적인 방식 뿐 아니라 정부가 오랫동안 간과한 이들을 위한 돕기 취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복지 지원이 가능한 소득계층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복음주의연맹은 이 같은 총리의 발언을 환영하고 나섰다. 그리고 교회가 나눔의 사회 조성에 반드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A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메이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생명력 있고 다양한 복음주의 단체들은 오랫동안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며 이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실패한 정치적 실험의 조각들을 수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해법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교회는 테레사 메이 총리가 예상한 '나누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자유롭게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신앙 그룹들의 역할을 더욱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니 웹스터 EA 대변인은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정부 당국과 함께 일하기 위해, 신념과 반대되는 가치에 강제적인 동참을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웹스터 대변인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큰 사회'는 자유주의의 사회적·경제적 아젠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나누는 사회는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교회는 이같은 관계성을 발전시키고, 후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중국 지하교회 '여전한 핍박'에 고통

한 목회자 국가기밀 누설로 기소 당해

과거 공산주의 시절보다는 많은 개방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중국의 지하교회들은 핍박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지하교회 목회자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국가기밀 누설죄로 말미암아 징역형을 선고 받아 '종교 박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시 난밍(南明)구 법원은 지난해 말 가정교회 목회자인 훠스(活石)교회 양화(仰華) 목사를 국가기밀 누설죄를 적용,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양 목사는 아직 판결문은 받지 않았지만, 항소할 뜻인 것으로 전해졌다.

1년 전인 지난 2015년 12월, 중국 공안은 훠스교회에 대한 단속을 통해 양 목사와 교회 성도들을 연행했다. 동시에 교회 건물을 폐쇄하고, 500만 위안(약 8억 7,500만 원)을 벌금으로 부과했다. 공안은 당시 양 목사를 공무집행 방해로 5일 동안 구류했는데, 양 목사가 자신을 감시하라는 민족 종교국의 문건을 인터넷에 올리자 이를 '국가기밀 고의 누설'이라며 기소했다.

한편 양 목사의 변호인인 산둥(山東)성의 자오융린 변호사는 "양 목사가 작년 수 차례 고문과 폭언을 들으면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물론 이를 부인했다. 그는 "이런 결과 자체가 불법이며,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은혜 기자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무슬림 수십만 명 회심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있다

중동 지역 내 박해와 폭력이 극심한 가운데 수 십만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고 최근 英크리스천투데이가 캐나다 순교자의 소리를 인용, 보도했다.

방송을 통해 중동 지역 기독교인들을 돕고 있는 캐나다 순교자의 소리(The Vocie of the Martyrs Canada, VOMC)는 "무슬림 출신의 새신자들 가운데 굉장한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VOMC는 보스뉴스라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수 십만 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다"면서 "이라크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으며, 중동에 가족들이 있는 많은 사람들과도 대화를 해 왔다. 중동 지역의 방송 사역자들 중 일부는 그리스도께 돌아온 이들의 간증을 현지에서 직접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시다"라고 덧붙였다.

영국·아일랜드 오픈도어 책임자인 에디 라일은 "중동 지역에 보내진 한 목회자는 어느날 하루, 무슬림들이 너무 많아 교회에 공간이 없자, 전교인들에게 교회로 나오지 말아달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했다.

앞서 英크리스천투데이 역시 "이라크와 시리아의 교회들이 새신자들로 가득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레바논 연합교회를 설립하고 중동 전역에서 약 30개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미 대거 목사는 지난 2015년 크리스천투데이와이 인터뷰에서 "바그다드의 교인 80%가 이라크를 떠났지만 교회는 여전히 새신자들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그는 "바그다드 주일예배 인원이 400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30%가 외지에서 온 이들이다. 현재 이 가운데 73명이 기독교로 개종해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IS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다. 자신들이 믿던 종교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교회로 오고 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삼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cst# 212654040 PRT Tour & Consultin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플러싱 지사 (718)928-3333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로스엔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서울 지사 (02)739-0890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성지순례와 문화탐방"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유럽 4개국 성지순례와 문화탐방
8일 $2,600 ▶4/24 (항공포함)
▶ 프랑크푸르트 – 하이델베르그 – 프라이부르그–루쩨른 –취리하–로텐부르크 프라하 – 드레스덴 – 비텐베르크– 라이프치히 – 아이제나흐 – 프랑크푸르트
① 황태자의 첫사랑 하이델베르그 & 칼뱅 종교개혁지 순례
② 유네스코 문화유산 쁘띠 프랑스 스트라스버그
③ 호반의 도시 스위스 루체른 & 츠빙글리 취리히
④ 보헤미안 천년성 체코 프라하와 얀후스 개혁지
⑤ 종교개혁 메카 루터 비텐베르크 & 라이프치히

성경속 산책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5일 $999 ▶4/17 (항공포함)
▶ 시카고 – 인디애나 폴리스 – 신시내티 – 인디애나폴리스 – 신시내티
① 시카고 시티 투어 – 밀레니엄 공원 / 시청
② 인디애나 폴리스 주 의사당 외부관람
③ 창조박물관 – 성경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록물을 보관
④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ARK투어 – 실물크기의 노아방주 모형
⑤ 신시내티 내셔널 언더 그라운드 레일로드 프리덤 센터
⑥ 링컨생가 및 뮤지엄 –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이끈 대통령의 생가, 뮤지엄
⑦ 맘모스 케이브 국립공원 (세계최장 동굴) – 켄터키 주에 있는 메머드 동굴

새로운 여행 문화를 창조하는 푸른여행~ 푸른감동~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 재향군인회 소속 회원님께 특별 할인 해 드립니다. – 푸른투어를 방문하시는 모든분께 스파팔래스 할인쿠폰을 드립니다.

1 3 Big Event
1월 부터 3월까지 스페셜 특가로 모십니다!
중남미 스페셜

여행설계사 <데비드 강>과 함께하는
청정 코스타리카 4박5일 $1,399 (항공포함)
– 용암, 분화구 대자연의 경이 – 아레날 화산
– 힐링! 청정 자연을 그대로! ~ 화산용암 온천욕
▶특별출발: 1/23
4박5일 ▶ 1/20, 2/9, 2/14, 2/25 $1,030+항공
5박6일 ▶ 1/16, 1/30, 2/8, 2/13, 2/24 $1,130+항공

치첸이사 / 칸쿤 3박4일 $1,199 (항공포함)
치첸이사 한국인 가이드 동행 / 5성급 옴니호텔 숙박 ▶1/16 2/13

전설의 잉카 페루 5박6일 $2,099
리마쉐라톤 호텔 숙박 ▶ 특별출발 : 1/30 2/13,27 3/13,27
항공포함 / 관광, 숙박, 입장료 등 완전 포함 / 마추픽추 / 나스카 지상화

2월~4월까지 스페셜 특별가 쿠바
3박4일 $1,360 (항공포함)
5박6일 $1,999 (항공포함)
– 4성급 호텔 숙박 – 한국어 가이드 동행 ▶ 4명 이상 수시출발
– 하바나 시내(구시가지) – 헤밍웨이 박물관 – 시엔프에고스 시내 – 트리니다드 시내
최소 2명 이상 출발 가능 / 비수기 기준 요금 / 그외 날짜 문의

정열의 중남미
남미의 4대 명소 – 이과수 폭포, 아마존 정글, 공중도시 마추픽추, 신비의 지상화 나스카 라인
정열의 남미 10박11일 $4,699 ▶ 1/19
브라질 / 아르헨티나 6박7일 $3,499 ▶ 문의
로스카보스 3박4일 $645 ▶ 문의

1월 특선
"남가주 사진작가협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사진여행"
모나크 나비 축제 / 온천
1박2일 ▶1월 28일 $199
– 피스모비치 / 아빌라 비치
– 샌 시미온 / 온천

1
3차 출발 조슈아 트리 온천여행 $99 ▶2월 6일
2/6 3차 출발~ 서두르세요!!!
100명 선착순!
1박2일
① 조슈아 트리 별보기 ② 카바존 아울렛
③ 샌 하신토 케이블카 탑승 ④ 데저트 핫 스프링스 온천

2
아~ 대한민국 정수라 콘서트 투어
① 팜스프링스 시내투어
② 카바존 아울렛
③ 콘서트 관람 (모롱고)
※ 티켓만 구매 가능 ($100/$80/$60)
▶2월 12일 $99

3
알래스카 오로라기차여행 4박 5일
▶출발 : 목요일 $1,300 +항공
– 전세계 유일 '설국열차' 타고 알래스카 횡단 (12시간)
– 페어뱅스 역사박물관, 얼음호텔, 산타마을 등

미 서부, 동부, 캐나다, 한국 모든 여행을 푸른투어 5개 지사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미서부

다른회사와 차별화된 미서부 관광
1 라스베가스 특급호텔 몬테카를로 호텔 숙박
2 디럭스 리무진 라스베가스 야경 투어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 매주 월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4대 캐년 4일 $389
4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4일 매주 화 – 7일 매주 화 / 토 3대 캐년 + 앤텔로프 캐년
그랜드 캐년 / 라스베가스 3일 $299
▶ 매주 화 / 토
요세미티 / 샌프란시스코 4일 $389
▶ 매주 월 / 목 / 금 / 토
미서부 실속 여행 6일 $599

푸른LA 일일투어
▶수/금 $99
(전용차량, 한인가이드)
올베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헐리웃거리/로데오거리(차창관광)/산타모니카해변/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9대 캐년 완전정복" 그랜드 써클
6박7일 $829 ▶3/24, 4/21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 아치스 캐년 / 엔텔로프 캐년 / 모뉴먼트 밸리 / 캐피틀 리프 / 캐년 랜즈 / 글렌 캐년

"특급 몬테카를로" 미서부 4대 캐년
3박4일 $389 ▶매주 화 출발
자이언 / 브라이스 / 앤텔로프 / 그랜드 캐년

라스베가스 특급 몬테카를로 호텔 숙박
최고급! 디럭스 리무진 야경투어~

미동부

"가주교육신문과 함께하는 봄방학 특선"
명품 IVY 리그 5박6일 $1,399
– 예일대학에서 정태현 박사과정 특강 1시간 ▶3/28 4/4

5박6일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펜/존스홉킨스/콜롬비아 ▶매주 화/토 $1,399
7박8일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펜/콜롬비아(나이아가라) ▶매주 수 $1,499
① 재학생 투어 총 3회 <예일/하버드/유펜> ② IVY 전문 가이드와 함께 캠퍼스 투어 ③ 3명 이상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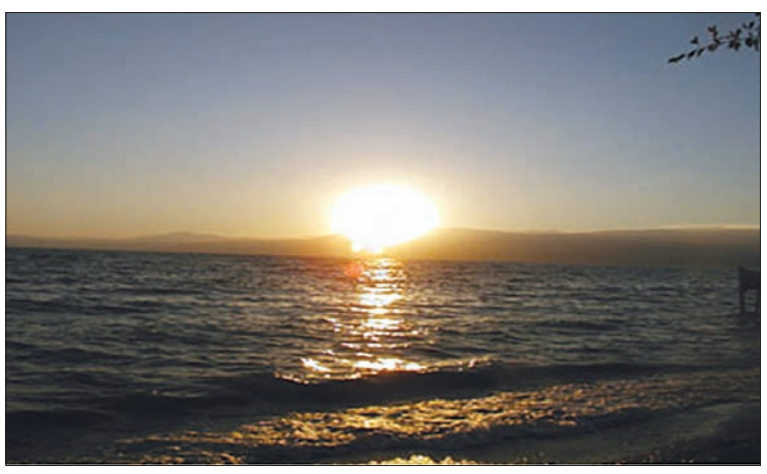
1 푸른 유일 $100상당의 3대 옵션 포함 – 타사 비교 요망
1) 자유의 여신상 2)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장료 3) 시닉터널
2 서부 여행사 유일하게 타사위탁이 아닌 푸른이 직접 행사

실속 미동부 5일 (뉴욕/워싱턴 DC/나이아가라) ▶ 매주 수/토 $799 (항공포함)
미동부 6일 (미동부 5일 + 토론토) ▶ 매주 수/토 $8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7일 (미동부 5일 + 보스턴/뉴포트) ▶ 매주 수/토 $1,04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8일 (미동부 6일 + 보스턴/뉴포트) ▶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미동부 6일 + 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캐나다 10일 (미동부/캐나다 8일 + 보스턴/뉴포트) ▶ 매주 수/토 $1,299 (항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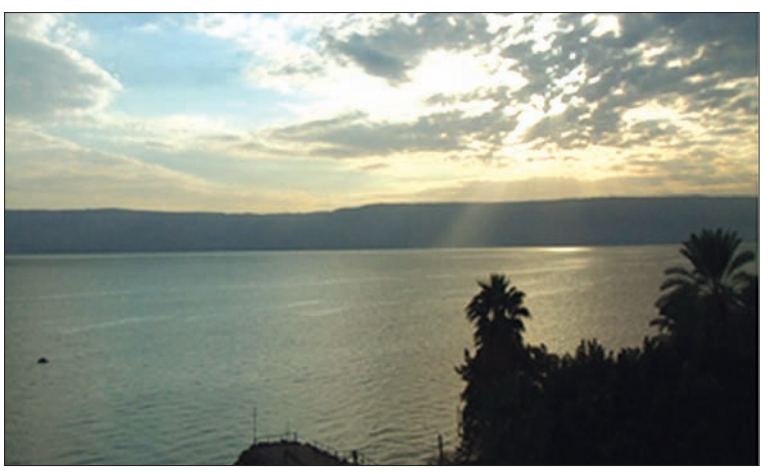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PRT Tour & Consulting cst# 212654040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무료픽업 가능 : 가든그로브/토렌스/세리토스/가디나/다이아몬드 바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17)

갈릴리로 가는 길


갈릴리 바다의 일몰 전경.

갈릴리 바다 전경.


갈릴리 바다의 일출 전경.

◈벳샨에서 갈릴리 바다로 가는 길

벳샨(beit shean)에서 북쪽으로 90번 도로를 타고 24.8마일(40km)을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sea of galilee)가 나온다.

벳샨을 넘어서면서 좌측으로는 돌로 된 공동묘지를 볼 수 있고 우측으로는 벳샨의 축구 경기장을 볼 수 있다. 버스는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타고 갈릴리로 힘 찬 걸음을 내딛는다.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듯이 벳샨은 자그마한 농촌 도시지만 그래도 홍해에서 사해 그리고 요단강을 따라 갈릴리로 올라가는 중요한 도로 선상에 놓여 있어 예로부터 교통이 사통팔달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서쪽으로는 이스라엘 곡창지대인 이즈르엘 평원을 지나 갈멜산 산자락의 하이파 항구와 지중해를 만나고, 동쪽으로는 킹 후세인 국경을 넘어 요르단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작은 농촌 도시지만 이스라엘 프로 축구팀을 보유하고 프로 축구 경기가 열리기도 한다.

벳샨에서 갈릴리 바다까지는 불과 30~40분정도 걸린다. 그러나 이전의 황폐한 광야의 모습과 요르단과의 국경 철책선이 없고 과실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길이다. 마치 진짜 요단강 건너 천국으로 입성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길이다.

◈요단강의 역사

Jordan River는 yarden, '흐르다'는 뜻을 의미한다. 수원지인 상류지역의 단(dan)에서 왔다 해서 요르단이라는 합성어가 되었고, 이스라엘에서 정말 보기드문 상시 흐르는 강으로 북쪽 헬몬산 서남쪽 단과 세닐, 파니야스 등의 수원지에서 발원하여 상류 요르단강(13마일(21km)이 되어 홀레 호수로 들어가고, 이 물은 다시 22.3마일(36km)을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간다. 갈릴리 바다에서 합쳐진 강물은 갈릴리 바다 남단으로 흘러 하류 요단강이 되어 사해까지 직선거리 64.6마일(104km)이 되고 곡선으로는 약 3배 정도가 강물이 되어 흐른다.

해발 2800m 정도 되는 헬몬 산에서 -200m되는 갈릴리 바다로 큰 낙차를 이루고 흐르고 갈릴리에서 사해의 -400m되는 지역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연 낙차가 매우 커서 물의 흐름은 빠르고 강의 여기저기에는 소용돌이와 급류가 있다.

요단강의 평균 넓이는 30m이고 깊이는 1~3m밖에 되지 않지만 겨울에 비가 많이 오기라도 하면 물의 양은 수십 배로 불어난다. 하류가 가면 넓이가 1마일에 달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정복전쟁 때 넘어간 곳이 제일 넓은 곳이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편과 동편 산지의 길이가 3.5~14마일(5.6~22.5km), 평균 7.5마일(12km)이 되어 다양한 계곡의 모습을 보여준다.

요단 계곡에서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지류 중 중요한 강은 야르묵과 얍복강이 있다.

서쪽에는 하롯샘에서 흐르는 물과 와디 파라 등 자그만한 시내물이 있다.

요단강 동편의 도시에는 길르앗 야베스. 사르단, 숙곳, 아담 등이 있고 서편에는 벳샨, 여리고, 길갈 등이 있다.

야곱은 얍복강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꾸어졌다.(창 32:32)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아담이라는 성읍에서 물이 멈추었다.(3:16)

사사 에훗은 모압족속을 요단강 나루에서 이겼다.(삿 3:28)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은 요단강 나루에서 잠복하여 미다안 군대를 격파하였다.(삿 7:24)

사울의 시신은 요단강 건너가 길르앗 야베스에 안치되었다(삼상 11:9)

다윗은 사울을 피해 부모를 요단강 건너 모압으로 안전하게 피신시켰다(삼상 22:3)

엘리야는 요단 강물을 친 후에 승천하였다.(왕하 2:8) 엘리사는 요단강물을 갈랐다.(왕하 2:14)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 문둥병이 나았다.(왕하 5:1~14)

신약성경의 세례요한의 무대도 요단강이었으며 예수님도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다(마 3:13, 눅 4:1)

◈요단강 건너는 것은 천국 가는 것

벳샨에서 약20분쯤 지나면서 우측으로 요단강이 살짝 살짝 보이는데 이쯤 하여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한다. 찬송가 291장 날 빛 보다 더 밝은 천국을 부르면서 요단강 건너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은 묵상을 한다.

영적인 의미의 요단강 건넘은 천국 곧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구약시대 여호수아의 가나안땅 점령 작전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로 들어갈 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찬송 후렴에 며칠 후 며칠 후를 몇 분 후 몇 초 후로 바꾸어 부르며 요단강 건너는 것이 실감난다. 필자는 순례객들을 인도할 기회가 되면 꼭 이곳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며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넌다.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관연 요단강 건널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요단강 건너 하늘나라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다시 부르심과 소명에 충실하지 못한 지난 시간들이 아쉬워진다.

필자가 전도사와 부목사로 시무할 때 어느 여름날 대학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진안고원지대에서 한 적이 있다.

그때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죽음을 체험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학생들 중 몇 명하고 각본을 짜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게 하여 어느 여학생을 사고사 시켰다. 그 여학생을 시체처럼 만들어 놓고 쉬고 있는 학생들을 불러 모아 여학생이 사고로 죽었다고 전하고 천국 환송예배를 드렸다. 학생들이 많이 울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중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프로그램 중 일부였다는 것이 밝혀져 일부 학생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적도 있다.

요단강 전경.

아무튼 요단강 건너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에 요단강을 건널 때 쯤에 각별한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나이 많은 여인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한다.

◈요단강의 현재 모습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단강을 보고 "에이 이게 요단강이야? 우리 동네 수로(똘)만도 못하잖아"하고 요단강의 크기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요단강은 상류에 헬몬산에서 발원하는 세닐과 단과 가이샤라 빌립보(파니야스)의 물줄기가 합쳐서 37.2마일(60km)을 흘려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고 다시 갈릴리 남서쪽으로 하류 요단강이 흘러 186마일(300km)을 흘러 내려서 사해로 들어간다. 해발 2800m 고지에서 해저 400m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요르단(내려간다는 뜻)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스라엘이 건넌 요단강은 하류 쪽 거의 사해에 가까이 있는 부분(서쪽으로 여리고 동으로 느보산)이고 예수님의 세례터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부분과 거의 일치한다.

하류는 폭이 0.25마일(40m)정도로 넓어지고 우기에는 넓이가 1마일(1.6km)에 달하기도 하는데, 많은 양의 물들이 내려간다.

하지만 1925년 갈릴리 바다 쪽에 세운 수문으로 인하여 물이 옛날처럼 자연스럽게 내려가지는 않는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요단강을 보지 않고는 성경의 교훈을 실제적으로 느끼기 어렵다.

요단강을 건너면 갈릴리가 나타난다. 좌우로 감람나무(올리브)가 열병식 하듯이 서서 순례객들을 환영한다.

버스가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오른쪽으로 돌아서면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갈릴리 바다를 눈앞에서 바로 볼 수 있다. 갈릴리 바다에 관한 이야기는 추후에 추가로 다시 다뤄보기로 하겠다.

〈계속〉

서병길 교수
임마누엘대학교
캘리포니아신학교

필자와 함께 가는 영성나들이
이스라엘-요르단
2017년 3월 20일~30일
***문의: 213-505-1583**
***이메일: iskms@hanmail.net**

2017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CD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환영배너 스텐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탑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junimmedia.com 개척교회 및 신학교, 선교단체를 위한 특별할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전도대상자 또는 방문자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전도용품 세일
✦ 전도물티슈 ✦
✦ 볼펜 ✦
전도용물티슈 1,000set($380) 고급향균 물티슈! 1set에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이 구비되어 있으니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더욱 다양한 샘플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전도용 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설교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환영배너 (스텐드 포함 $65) Free Shipping!!!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실버시티보험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 보험 가입 &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Part C)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커넥트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213-321-0302 Connie Kim(김 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한국의 맛
우리반찬
KOREAN FOOD
THE BEAUTY OF KOREAN FOOD
최고의 기회 NO MSG
웰빙푸드 전문점
선별된 좋은재료, 최고요리 전문가의 정성어린 손길로 모십니다.
품격있는 캐더링
웨딩 캐더링
교회 행사 캐더링
돌잔치 캐더링
회갑잔치 캐더링
생일상 캐더링
• 스페셜 다이어트 푸드
• 자연의 맛 그대로 조리된 각종 반찬
• 전통 찜요리 (궁중찜, 갈비찜, 코다리찜, 조기찜, 묵은지 등갈비찜)
• 웰빙 김밥
• 김치류
연말 연시 캐더링 주문 환영
Tel(213)388-0022
356 S. Western Ave. #106, Los Angeles, CA 90020
찾아오시는 길 Western Ave 4Th

•심민수 칼럼

기독교의 진정한 '보수'는....

심 민 수 교수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온 나라가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 문제로 들끓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더 높은 파고를 일으키는 가운데, 반전의 모멘텀을 잡으려는 일부 정치 기득권의 또 다른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밝히려는 자들과 덮으려는 자들의 정치 투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탄핵이 가결되면서 기독교계에서는 진보와 보수 간에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진보는 탄핵 가결에 크게 환영을 표했지만, 보수는 탄핵 가결 후의 정국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이러한 입장 차는 교계가 지닌 기독교 진보와 보수 개념이 성경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통속 개념에 포획된 듯한 느낌을 준다. 자칫 빠지기 쉬운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독교 보수와 정치 개념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 보수에 대한 개념을 놓고 크게 두 가지 오해가 있어 왔다. 첫째 오해는 오직 전통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만 해도 보수라고 착각하는 경우이다. 현실의 윤리적 실천과는 무관하게 교리적 주장에만 집착하는 '인지부조화적 보수' 개념이다.

이는 '내면화된 신앙'의 외연화로서의 삶이 보여주는 '신앙의 통전성'을 간과한 결과로 보인다. 대개 이런 보수는 관습적 전통 교리 수호를 내세워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나, 실제로 성경이 보여주는 진정한 신앙인의 온전성을 실현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강박적 종교 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양상은 결국 신약시대 대표적 유대 종파로서 초기의 동기에서 벗어나 서민들 위에 군림했던 종교적 형식주의의 대표 격인 바리새파의 현대적 변형에 불과할 수 있다.

둘째 오해는 기존의 정치그룹이 주장하는 보수와 기독교적 보수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통상적으로 세속적 정치그룹에서는 보수를 기존의 기득권 체제 유지와 동일 선상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보수 이데올로기의 이상과 가치가 원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 기득권 체제 유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보수 개념이 강하다. 문제는 이런 기득권 보수들과 맥을 같이하면서 이들의 사고에 종속된 기독교계 인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개 기득권 그룹과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긴밀한 교제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성경의 예언자적 도전과는 반대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사랑을 전제로 기득권 그룹의 입장을 두둔하기에 바쁘다. 이런 행태는 신약시대 종교 권력층에 속하면서 필요에 따라 기득권 정치세력인 헤롯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두개파의 현대적 재현이 될 수 있다.

기독교의 진정한 보수 개념은 성경의 계시가 담고 있는 가치를 총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수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성경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보수한다는 것은 성경 계시 전체가 제시하는 성경적 가치를 일부 혹은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수용함을 의미한다. 이는 성경의 일관성 있는 맥락과 함께, 기록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을 전제한다. 흔히 로마서 13장의 해석을 놓고, 하나님의 법적 질서를 제시하는 전체 맥락과는 상관없이, '모든 권세에 대한 복종'의 의미를 제왕적 정치 권력자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본문에 대한 대표적인 오석이다.

한국 교계의 일부 보수 그룹은 한동안 권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허술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 권위와 권력의 구별에 있어서 특히 그러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서의 법질서가 갖는 권위와 이 법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인간 권력자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누구도 하나님의 법질서의 권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동시에 궁극적 심판의 대상이라는 엄정한 사실을 가르친다. 모두가 하나님의 법질서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의 정치 권력자에 대한 사법적 사실조차 판단을 유보해 버리는 것은 보수적 신앙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의롭지 못한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적 가치를 일관성 있게 보수하는 길이다.

한국 기독교계에 바로잡혀야 할 또 하나의 개념이 있다. 바로 '정치' 개념에 대한 인식이다. 기독교 진보 계열에서는 복음의 본질을 뒷에 둔 채 정치 참여에만 집중하는 주객전도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기독교 보수 계열에서는 정치라 하면 종교와는 상관없는 세속적 삶의 일환으로 보고 신앙 영역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전자가 신앙의 핵심적 요소를 망각한 채 부수적인 주변 거리에 몰두하기 쉽다면, 후자는 신앙 범주를 삶의 일부 영역에만 국한하는 성속 이원론적 사고에 매몰되기 쉽다는 말이다. 물론 정치와 관련하여 진보와 보수, 즉 양극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기독교계 안에서 마저 타당하냐 하는 문제는 더 많은 논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구분은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만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의 정치는 과거 절대왕정 시대나 봉건시대의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신분제도의 고착화로 신분이 세습되었던 과거 시대, 다시 말해, 신분에 따라 정치 입지가 차별화되었던 시대에 일반 민중들은 정치적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 당시의 시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 제도 속에서 개개인은 현실의 책임 있는 존재로서 각자 분명한 정치적 입장과 태도를 선택하고 행동할 민주 시민의 책무를 지닌다. 이로써 오늘날 모든 개인은 이미 정치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민주 국가 제도 속의 구성원인 기독인도 신앙 양심에 따른 책임 있는 정치적 행동이 요청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보수를 추구하는 신앙인이 역사적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서는 길은 무엇일까? 이번 국정 농단과 관계된 사람 중에는 지역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정황을 두고 어떤 정치인은 이 사태에 기독교계가 관련되었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농단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느 교회 뜰을 밟았든, 그들이 기독교 진리와 무관한 사람들인 것은 확실하다. 기독교의 보수란 신학 노선의 보수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보수는 성경이 추구하는 가치를 온몸으로 보수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의 현장에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정직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도피적 자세나 무관심의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포착하고 여기에 용기 있게 반응하는 시대의 양심이 요청되는 것이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보여주었던 신뢰할만하고 자랑스러운 자취들 말이다. 초기 믿음의 선진들은 우상숭배의 폭압과 강제 속에서 순교로써 조국 교회의 순전함을 지켜냈다. 그 안에서 복음의 불씨를 가지고 겨레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몸 바쳐 헌신했다.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소수였던 그 시절에도 사회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그들은 신앙 안에서 정직했고 믿음 가운데서 옳았으며 행동 면에서 모본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신학 노선과 교단 배경을 넘어 바로 그런 모습의 본산이 되었고 강단은 그런 삶을 선포했다. 그들이야말로 기독교적 가치를 분명히 일관성 있게 지켜낸 기독교의 진정한 보수들이었다. 과연, 이 시대 어디서 이런 가치의 보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기독경영 칼럼(1)

성경적 원리

제임스 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I. 기독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을 시작하며

오늘날의 사회에서 기업활동은 모든 사회의 흐름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1주일의 주어진 삶의 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기업 활동에 사용한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기업활동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보는 시각과 비즈니스 선교라는 주제 측면으로 다루고자 한다.

기업경영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기독경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무관심하거나 우리가 잃어버린 요소들이다. 기독경영 전략을 통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세속적인 경영 철학과 성경적인 경영 철학을 구분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으로 다룰 부분은 5가지로 그 영역을 구분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경영의 성경적 원리이다. 경영에 대한 이해와 경영에 있어서 적용되는 성경적 원리와 핵심 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성경적인 경영원리에 대한 적용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업이 되는 7단계 및 변화하는 세계 속의 성경적 절대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기독교 경영전략으로 그리스도인의 기업 경영 목적과 기업활동에서의 영성, 기업 활동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전략경영에 대한 기독교적 정의를 통해 기독교 전략 경영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세 번째는 분야별 성경적 경영 전략으로 각 경영 분야에서 적용되는 실제적인 기독경영 전략으로 마케팅전략, 광고 전략, 회계 전략, 조직행동, 인적자원, 정보시스템과 운용, 보험, 투자, 기업법, 시장에서의 정의라는 주제별로 어떠한 성경적 원리가 각 분야별 경영 전략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네 번째는 선교와 비즈니스 선교로 비즈니스 선교의 용어 정리, 선교의 구분, 선교사의 사역적, 재정적 책무, 비즈니스 선교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함께 경영학적 관점과 선교학적 관점에서 본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선교전략은 다양한 비즈니스 선교전략 중에서 의료를 통한 선교, 비 정부 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를 통한 선교, 인터넷을 통한 선교, 교육 사업을 통한 선교, 네트워킹을 통한 비즈니스 전략 등과 함께 비즈니스 선교를 위한 사업계획 전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강의를 통해서 성경적 경영 원리에 대한 이해와 비즈니스 선교의 중요성을 독자들이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겠다'는 선교 사역이 확대되도록 기독경영과 비즈니스 선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강의의 내용은 미국 한인 신학교 최초로 Grace Mission University에서 개설된 MAICS(Master of Art in Inter Cultural Studies) - BAM(Business As Mission) Emphasis 과정의 Business Professional Studies 중 한 과목인 Strategic Business Planning 과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계속〉

미주 제 63차 성경완독집회
2017년 1월 23일(월)~26일(목)

3박 4일
성경 66권 완독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새해, 첫달 성경66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해

신구약 66권 전권을 3박 4일(약 50시간)에 통독하는 은혜와 감격을 체험합시다.
성경읽기가 재미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싶어지며,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훈련입니다.
본 성경통독과 암송훈련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숙식 제공
집이 가까운 분은 집에서 왕래 가능

일 시 2017년 1월 23일(월)~26일(목)
장 소 갓스윌연합교회 (담임 : 이희철 목사)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Tel : 909.983.0994 / Cell : 909.268.4279
주 최 미주요한선교단(대표 : 안성기 목사)
The John's Mission USA
참가대상 교역자, 선교사, 제직, 평신도, 학생 및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

참가비 1인당 $70(숙식비 포함), 부부 $100
등 록 1월 23일(월) 당일 오전 9시~10시
준비물 성경(개역)과 찬송, 세면도구, 담요 또는 슬리핑백
개회예배 1월 23일(월) 오전 10:00
수료식 1월 26일(목) 오후 6:00
특 강 성경통독 세미나 – 성경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읽는 방법
성경통독 세미나 – 성경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방법
T-QT 세미나 – 다윗의 경건생활 모범

교회 찾아오시는 길 Tel : (909)983-0994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주최 : 말씀사랑운동 미주요한선교단(대표:안성기) Tel:(909)983-0994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은혜의 방식
존 플라벨 | 청교도신앙사 | 646쪽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적용이라는 신비로운 방식이 있다. 19세기 선교사들의 가방에는 바로 이 책 〈은혜의 방식〉이 들어 있었다.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일을 가장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광풍을 만나도 대담한 표정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생각한다
이재훈 | 두란노 | 193쪽

현대인들은 날마다 쏟아지는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기 쉽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자기만의 가치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지가 삶의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 매체와 기관뿐 아니라 작고 소소한 주변의 이야기에도 해당한다는 점이다. 저자 이재훈 목사는 이 '생각의 함정'에 대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솔로몬: 어떻게 유혹을 이길 것인가
필립 라이큰 | IVP | 332쪽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저자인 휘튼 칼리지의 총장 필립 라이큰이 솔로몬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며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선보인 책이다. 지혜의 대명사이자 잠언의 저자요 위대한 업적을 자랑하는 대왕 솔로몬. 누구나 제법 안다고 생각하는 솔로몬에 대한 편견을 가차 없이 깨뜨려 주는 이 책은, 충실한 주해를 바탕으로 그의 화려한 성공과 명성 이면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정명철 | 쿰란출판사 | 440쪽

도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명철 목사가 지난 1년간의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집필한 책이다. 또한 가정예배나 개인 묵상을 위해서도 유익하다.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제목이 각 장마다 실려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확신과 교육과 훈계와 위로 등 수많은 주제들이 있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기도하는 목회'란 '말하는 벙어리'이다

힘든 목회를 대하는 자세…한국교회의 산증인 박희천 목사의 일생을 통해 배울 수 있어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 1884년부터 1945년까지를 1~2세대(도입과 정착기 그리고 시련과 배도), 1945년부터 1990년까지를 3세대(분열과 대성장), 1990년부터 현재까지를 4세대로 구분하고 싶다. 한국교회에는 이제 믿음의 가정이 4~5대를 유지한 가문도 있다. 박희천 목사는 한국교회가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동안 사역했다. 박 목사님은 '역사 담지자'이다. 우리는 박희천하면, '내수동교회', '대학부', '옥한흠' 등을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사랑한 성경〉에서는, 박희천 목사의 청년기에서 내수동교회까지의 인생을 볼 수 있다. 그 인생을 한국교회에 소개함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큰 유익을 얻게 됐다. 내수동교회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역자를 배출했고, 그들이 한국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이 됐음을 그의 자서전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한 성경〉 속 박희천 목사의 일생에서, 한국교회 역사의 흔적을 볼 수 있다. 1950년 이전의 평양신학교, 전쟁과 피난,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유학 그리고 내수동교회까지 지나온 그의 일생은 한국교회의 산 역사이다. 한국교회의 역사 중심에 박희천이 있었고, 그는 한국교회의 한 축을 세우는 역할까지 감당했다.

박희천 목사는 '성경' 독서에 있어 한국교회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박 목사는 '뇌리성경'이라는

내가 사랑한 성경
박희천
국제제자훈련원 | 192쪽

성경독법을 후대 목회자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목사의 성경에 대한 자세와 열심을 강조한 것이다. 그것은 평생 진행하던 현장에서 익힌 것이고 적용한 체험에 근거한 산물이다.

박 목사님은 자신이 신학교들에서 배웠을 때의 아쉬움을 근거로,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강의했다. 자신의 사역 경험을 담아 신학생들이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두 기둥(자료발굴과 전개)'을 전수했다. 박 목사님은 본문에 근거하지 않는 설교에서 탈출시킨 박윤선 박사님과 최원초 목사님(이북에서 섬겼던 교회)에게서 신학을 익혔다.

박희천 목사는 내수동교회 목회로 유명하다. 자기 사역이 내수동교회에서만 성장했다는 고백이 있다. 목사로서 매우 겸손한 표현이라 생각한다. 힘든 목회 가운데,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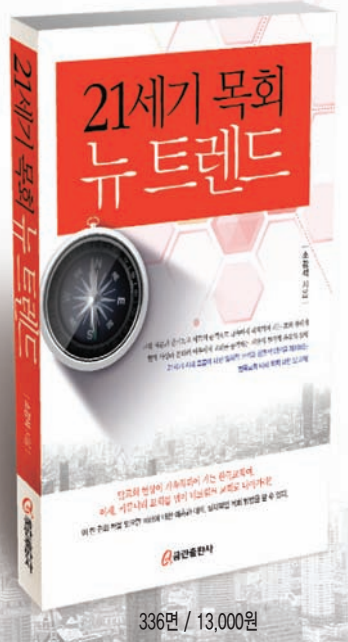
박 목사는 '기도하는 목회'를 '말하는 벙어리'로 표현했다. 기도의 위력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자세이다. 자기 목회 능력을 김창인 목사님(충현교회)과 비교하면서, 모든 요소가 없음을 고백했다. 그럼에도 설교에 대한 확증, 그리고 심방, 대학부의 부분에서 탁월한 사역을 일구었다.

〈내가 사랑한 성경〉은 목사 후보생이나 한국교회 역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도서이다. 박 목사의 인생이 한국교회 역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하다.

강도헌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위원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336면 / 13,000원

소강석 지음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다가오는 2017년을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와 함께 시작하세요!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천상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거룩의 재발견
317면 / 13,000원

생명언어
317면 / 13,000원

안나가? 가나안!
240면 / 11,000원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라
256면 / 10,000원

쿰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mran.co.kr
•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북스리뷰]

'교만'에 대한 가르침은 강단에서 왜 사라지고 있나

교만은 사라진 것이 아닌…자기 중심성이라는 가면을 바꿔 쓰고 있을뿐

기독교는 교만을 매우 싫어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만함을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만'이라는 단어가 강단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도 교만한 사람은 몇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교만하게 보이는 순간 공격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교만함이 사라졌을까? 아니다. 교만함은 지금 '자기 중심성'이라는 가면을 바꿔 쓰고 다닌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드러내놓고 거부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삶을 간섭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해 한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보다는, 자신이 이해되고 납득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믿음을 가지고자 한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 치중돼 있다. 분명 자신의 영혼과 내세를 위한 준비에 대해 관심이 없다.

자기부정
토마스 맨튼
믿음과행함 | 388쪽

◈ 자유의지

현대 신학은 점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신학이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쪽에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의지 논쟁은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부터 있어왔다. 어거스틴과 영국의 수도사 펠라기우스의 논쟁에서 어거스틴이 승리하면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원죄' 등에 의해 인간의 자유의지는 부정적 입장의 견해에 놓이게 되었다. 물론 '전적 타락'과 '원죄'의 교리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이며, 로마가톨릭의 '부분적 타락'과도 분명히 구별되는 중요한 교리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얼마 전 헐리웃에서 만든 영화 〈아바타〉처럼 인간을 무능력한 육체 덩어리로 여기게끔 하는 오해를 양산했다. 'Avatar'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Ava(내려옴)+tara(땅), 즉 '물질계에 몸을 입고 내려온 영적 존재'라는 뜻이다. 하지만 영화에 나온 '아바타'가 인간이 접속하지 않으면 죽은 육체 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 대해 영혼과 몸, 종교와 세상을 분리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관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 실재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기계적이고 유물론적 관계로, 즉 인간을 프로그래밍된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 정도로 보는 오해들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 역설적인 현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다수는 '자기 중심성'이 강해짐으로써, '자기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 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프로그래밍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는 신앙관이 이와 뒤엉켜 매우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종교적 삶과 세상 안에서의 삶이 일관성을 잃은 채 분열된 삶을 살고 있으며, 이들은 교회 안에서와 세상 속 삶의 현장에서 정신적으로도 분열된 정신적 분열을 겪고 있다면 과장일까?

◈ 자기 부정

토마스 맨튼의 글은 이 책이 처음이다. 그는 토마스 굿윈, 존 오웬, 리차드 백스터 등과 동시대에 그들과 더불어 큰 명성과 존경을 받았던 인물로 책의 표지 날개에 소개된다. 이 책을 차분히 읽어가면서 느꼈던 혼란스러운 부분 두 가지를 먼저 말하자면, 먼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이다.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듯 하다가 자유의지를 전면 부인하는 듯 하니,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다. 이런 부분은 신학의 발전과정을 보는 듯한 스릴을 느끼게 해 준다.

둘째, '옛 자아'와 '새 자아'에 대한 구별이 없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아바타'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들이다. 자아를 부정할 때 하나님이 자아를 부정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난 새 자아로 인해 옛 자아를 부정하는 식의 '새 자아'에 대한 개념을 전제로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차원의 자기 부정, 하나님과 관련된 자기 부정, 이웃과 관련된 자기 부정 등이다.

일반적 차원에서 자기 부정은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야 할 필요성을 여러 방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기 부정의 징표들과 표시들, 자기 부정의 수단'은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 깊은 묵상과 고민을 통하여 매우 세세하고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2부 하나님과 관련된 자기 부정은 하나님 앞에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종교적 부정을 다루고 있다. 이 부분 또한 깊은 묵상과 목회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들을 엿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와 친밀함을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되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이것 또한 봉건 시대의 사상적 한계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3부 이웃과 관련된 자기 부정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결론

이 책은 우리 개신교의 뿌리인 청교도의 중요한 신앙 유산이다. 이들의 믿음과 눈물, 땀방울을 먹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글들을 읽으면서 공통되게 느껴지는 것은 진리에 '신실함', '진지함'이다. 이들 또한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적어도 신앙을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들의 글에서 '권위적인 하나님'을 만나지만, 아마 짐작컨대,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였을 것이라 상상된다.

강도헌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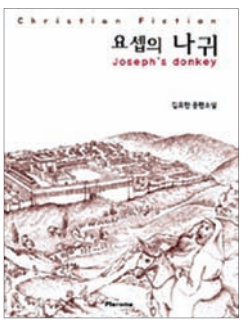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북스리뷰]

구약까지 확장하여 소설화 한 책

쉽게 손이 가는 기독교 소설



요셉의 나귀
김요한
플레로마 | 208쪽

'In the beginning was the story', 태초에 이야기가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의 말씀이 있었다'를 변주한 것이다.

말씀(word)을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이야기'가 된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는 뜻은 "내가 너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다"이다.

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고 한다. 다 알겠지만 이 말은 'His'와 'story'의 합성어로 '그의 이야기'를 말한다. 영어에서 '그(He)'는 하나님을 뜻한다. 그러니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이다.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지만,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이야기를 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성경 전체는 주님의 역사를 다룬 하나의 이야기이다.

성경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증가되는 것이다. 반면 소설은 이야기 자체이다. 기독교 소설의 지향점 또한 성경과 같다.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조금 쉬운 형태로' 증가되는데 있다.

이번 책 〈요셉의 나귀〉를 읽으면서 강력하게 느끼는 하나는, '저자가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소설은 재미있게 가다 흐지부지하게 끝나 '도대체 할 말이 뭐냐?'고 묻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소설은 정보만 나열하다 끝나거나, 여러 이야기를 다뤄 다 읽고 나면 뭐가 뭔지 모르기도 한다는 점을 볼 때, 이 소설의 장점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명확하게 드러난 데 있다.

'요셉의 나귀', 여기서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일반명사처럼 쓰이는 평범한 인물이다. '요셉이 누구일까?'에 주안점을 둔다면 주제를 놓칠 수 있다.

주인공은 나귀이고, 나귀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가 진행된다. '왜 하고 많은 동물 중에서 나귀일까?'에 의문을 갖고 읽는다면, 성경에 전체를 두고 볼 때 나귀가 갖는 역할이 중요하면서 의미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러 모리아 땅에 갈 때 썼던 나귀를 시작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탔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왜 저자가 나귀를 주인공으로 하여 우화(禹話)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전하려 했는지 알 수 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친숙하게 등장하는 동물이 나귀이기 때문이다. 이 나귀에 대한 통찰은 최근 여러 책에서 나타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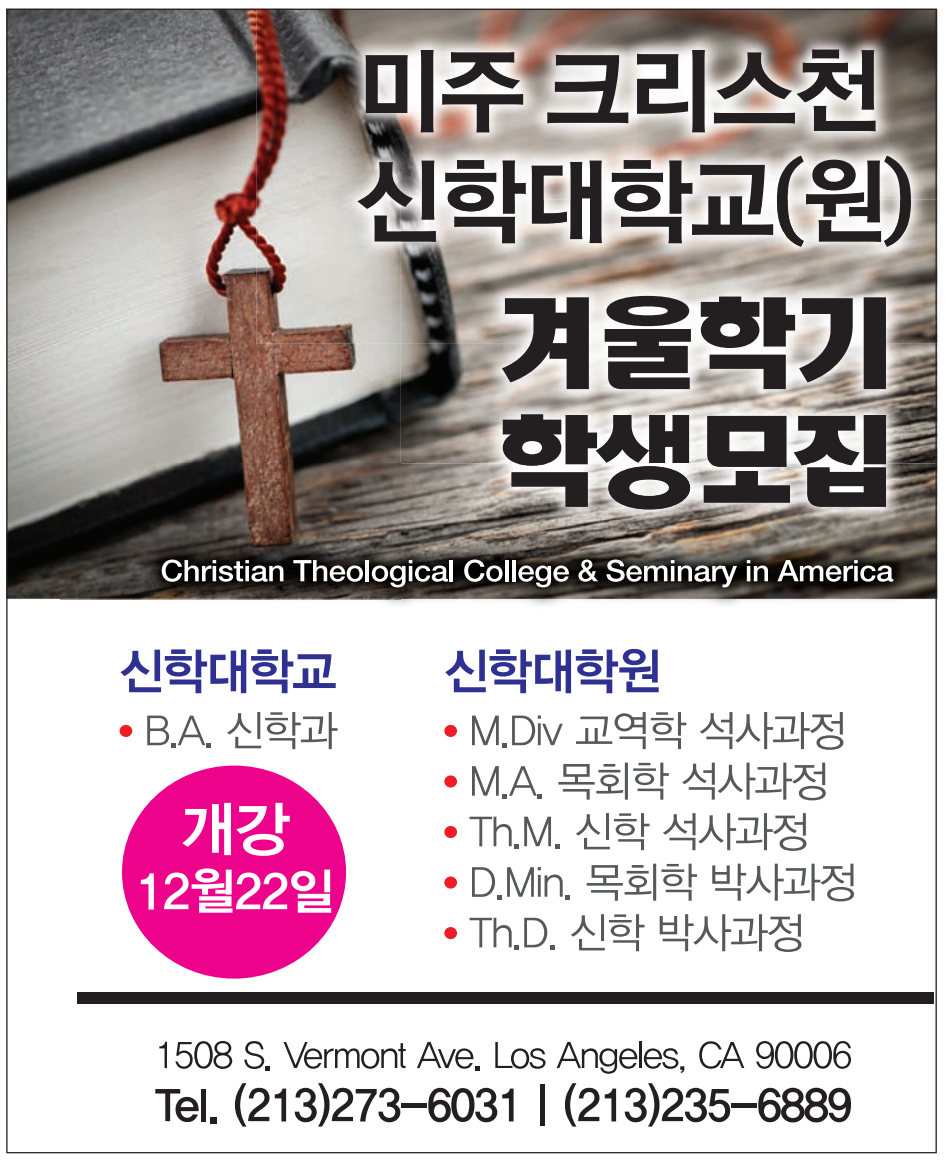
2016년 만화 신학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마태복음 뒷조사〉와 〈마가복음 뒷조사〉에서의 주인공도 나귀이고, 신학자 R. C. 스프롤이 지은 그림책 〈왕을 태운 당나귀〉에서도 나귀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언급한 이 세 권의 책도 읽으면 좋다.) 그런데 각각의 책은 신약에 국한시킨 데 반해, 이번 책 〈요셉의 나귀〉는 구약까지 확장한데다 소설화시켰다는 데 더 의미가 있다.

책은 우화답게 쉽게 읽힌다. 주인공 나귀(잇도)를 따라가다 보면, 성경에서 나귀가 차지하는 비중과 성경에 대해 시나브로 묵상하게 되고 궁금해지게 된다. 단점도 있다. 우선은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고, 쓰이는 비유가 맞지 않는 곳도 있으며, 문단 처리에 있어서도 하나의 대사를 여러 개의 문단으로 나뉘어 집중을 방해한다.

또 여러 대에 걸친 나귀의 족보를 통해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책에서 소개한 아브라함의 나귀, 하눈의 나귀, 예수님의 나귀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저자가 왜 주인공을 '나귀'로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한데, 소설을 처음 쓰다 보니 나귀들의 대사를 통해 너무나 단순하고 허술한 방식으로 주제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 책이 갖는 가치는 기독교 소설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잘 맞는다는 점이다. 굳이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서 쓰이는 나귀의 중요성을 몰라도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고,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 소설은 부드러운 카스테라 같아 쉽게 손이 가고, 쉽게 소설의 단맛에 심취할 수 있다.

이성구 서평가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January 12, 2017 Vol. 84

Korean American Campus Mission (KCM) hosted its first Winter Conference at the Pine Valley Conference Center from January 2 to 5. Students from eight universities attended the conference.

Korean American Campus Mission Hosts First 'Winter Conference'

BY RACHAEL LEE

Korean American Campus Mission (KCM), one of the largest Korean American college ministries in Southern California, hosted its first-ever 'Winter Conference' from January 2 to 5.

The campus ministry, which has a presence in eight universities, has had a tradition of hosting an annual 'University Retreat' during the winter break season, bu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ministry has hosted the Winter Conference.

"The Winter Conference has many similar elements to the past University Retreats, but it was different in that it was a unique opportunity for all eight campuses to come together given the winter break schedule," explained Sam Bay, special events director of KCM.

Themed 'Redemption,' the conference was also an opportunity for ministry leaders to "fully share the vision of KCM to all of the campuses and to push our Short Term Missions," Bay added. The conference focused on redemption from sin and shame during the first day, redemption from pain during the second, and redemption to the world during the last day.

"Through this conference, may Jesus lead you to deeper repentance, deeper healing, and a deeper commitment to take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through Short Term Summer Missions," Richard Kim, lead pastor of Gospel Life Mission Church and director of KCM, said in a welcome statement to conference attendees.

Richard Kim; Steve 'Bang' Lee, college pastor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Sam Bay; and Eugene Park, intern pastor at Gospel Life Mission Church and creative and missional director of KCM, were among those featured as plenary session speakers.

The conference also offered nine seminars on topics such as discerning calling; dating and marriage; choosing to stay or leave a church; friendships; 'gray area' issues such as drugs and alcohol; and difficulties in the Asian American family context, among others.

Attendees were also sorted into mixed-campus small groups and game groups, the former which were also separated by gender.

KCM has a presence in universities including Biola University, Pepperdine University, UC Irvine, UCLA, UC Riverside, UC Santa Barbara, UC San Diego, and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Over 200 Million Christians Face Persecution, and North Korea Ranked as Most Oppressive for 15th Year

Among the 50 countries that were ranked to be most restrictive and oppressive towards Christians, North Korea was listed at the top of the list for the 15th year.

The list of countries in which Christians face the most persecution was released by Open Doors on January 11, marking the 25th year that the persecution monitoring group has released the annual 'World Watch List.'

"For Christians in the West, the Open Doors World Watch List is a clear indicator that we need to advocate on behalf of those who do not have the same religious freedom privileges as we do," said David Curry, president and CEO of Open Doors USA.

Following North Korea, Somalia came in second in the list, and Afghanistan came in third. Pakistan, Sudan, Syria, Iraq, Iran, Yemen, and Eritrea followed, in that order of ranking, making these the top 10 countries in the World Watch List. This year was the first time Yemen was included in the top 10, and replaced Libya, which was ranked 11th this year.

North Korea, Saudi Arabia, and Somalia are the only three countries to ever have been ranked at the top of the list. Saudi Arabia has been ranked first seven times, and Somalia has been at the top twice.

According to the report, some 215 million Christians face high, very high, or extreme persecution.

This year, Open Doors highlighted the increase in persecution faced by Christians in India, and the influence that religious nationalism has had in the increase of persecution in Asian countries. India was ranked 15th in the 2017 World Watch List, the highest it has ever been ranked.

"A stand-out trend is that religious nationalism is driving the Asian countries up the list," Dr. Ron Boyd-MacMillan, director for strategic research at Open Doors, said. "It is most visible in India; India is at its highest position on the World Watch List ever. The Hindu extremists are really in power, and a mob can do what they like in India, and it's a large Church so there are a lot of incidents."

Open Doors also noted that an average of 40 incidents of persecution were reported each month in India, "including pastors beaten, churches burned, and Christians harassed."

However, persecution as a result of Islamic extremism continues to be the most common, the report notes. Islamic radicalization was particularly noted in sub-Saharan Africa, in countries such as Nigeria, Somalia, and Sudan. Extremist groups such as Boko Haram and Al-Shabaab have frequently attacked Christians, and in places such as Somalia, "Everything works against the Christian," the report quoted a local Christian as saying.

Open Doors took into consideration degrees of pressure faced in five facets of life when compiling the World Watch List, including private life, family life, community life, national life, and church life. The group also considered the amount of violent incidents against Christians in creating the rankings.

Remains of a church property burnt down in the Indian state of Orissa. (Photo: All India Christian Council/Wikimedia/C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Hosts Screening with Film Director Martin Scorsese

Fuller Theological Seminary, located in Pasadena, CA, recently hosted the film director Martin Scorsese in a private screening and interview session that took place at the Laemmle's Playhouse on January 7.

The event featured a screening of Scorsese's recent film, "Silence," which follows the story of Jesuit missionaries who try to build the church in Japan in the 17th century, based on a Japanese novel by Shūsaku Endō published in 1966. Makoto Fujimura, Christian artist and director of Fuller's Brehm Center for Worship, Theology, and the Arts, was a consultant to Scorsese for the film, and was also present during the screening event.

"I hoped this film would reach you, Fuller; you, the religious community," Scorsese said at the screening. "But I also hoped it was wider than that and not that narrow."

Scorsese also praised Fujimura, saying he "is a remarkable artist and writer." Fujimura wrote a book which records his own reflections on Endō's novel, called "Silence and Beauty," which Scorsese described a "quietly eloquent meditation on art and faith, and where they converge."

"It has been an honor to advise Mr. Scorsese on this film 'Silence' as a special advisor," Fujimura said. "This film truly honors Endō and the martyrs of the Japanese past; it is a profound gift given to the generations to come."

Scorsese, who grew up Catholic, had the idea of making "Silence" after reading and being captivated by Endō's novel, which sold some 800,000 copies in Japan. At the interview session in Pasadena, Scorsese said he hoped "Silence" would pose for the audience questions such as, "What does it mean to live a daily Christian life? How does one, if they are not able to or are not clergy, how does one express and live a true Christian life?"

In another interview with the Los Angeles Times, Scorsese said one of his greatest mentors was a priest at St. Patrick's Old Cathedral in New York.

"I couldn't understand how he let go his pride in order to serve. In a way, 'Silence' is an attempt to work through that question almost 60 years later. Because that's the very thing Rodrigues is struggling with as well," said Scorsese. Father Sebastião Rodrigues is the main character in the story.

Scorsese's filmography includes works such as "Mean Streets," "Good Fellas," "Shutter Island," and "The Wolf of Wall Street." Scorsese had directed another film related to Christianity in 1988, called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

Meanwhile, the private screening and interview was coordinated through the film arm of Fuller's Brehm Center for Worship, Theology, and the Arts, called 'Reel Spirituality.' The interview session was moderated by Kutter Callaway, assistant professor of theology and culture at Fuller.

LifeWay Study: Who Is Best to Lead a Conversation on Society's Challenges?

When it comes to entrusting someone with fostering a discussion on the issues the nation is currently facing, Americans aren't so sure who would be best for the task, according to a new study released on January 5 by LifeWay Research.

The study, conducted on 1,000 individuals randomly chosen between September 27 and October 1, asked participants, "In America today, who is in the best position to generate a healthy conversation on challenges facing our society?"

Out of a slew of choices including pastors, the President, members of Congress, the media, and university professors, the choice with the highest number of votes was 'none of these' (33 percent).

The second most popular choice was 'our elected President,' which received 23 percent of the votes. About 11 percent of survey respondents said pastors of local churches are in the best position to create healthy dialogue, and 10 percent said the same for university professors.

Members of the media, elected members of Congress, and business leaders all received similar amounts of votes (8 percent, 6 percent, and 7 percent, respectively). Professional sports players received 1 percent of the votes, while musicians received less than 1 percent.

"There's a vacuum of public leadership in America," said Scott McConnell, executive director of LifeWay Research. "We know we have problems and that we should talk about them. But there's no one who can bring us all together."

Out of the various ethnic groups, Black, non-Hispanic survey participants were most likely to select pastors of local churches (21 percent), while out of the religious groups, Christians were most likely to select the same (16 percent).

Those between the ages of 55 and 64 were most likely to select pastors of local churches (17 percent) among the age groups. Some 10 percent of those 65 and older selected the same, while 7 percent of those 18 to 24 and 6 percent of those 25 to 34 said the same.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Virginia Governor Issues Order Requiring State Contractors to Ban LGBT Discrimination

Virginia Governor Terry McAuliffe issued and signed an executive order on Thursday, January 5, prohibiting state contractors from discriminating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mong other categories of discrimination.

The order, however, will only apply to contracts made with the executive branch of the state. It also only applies to contracts made after the EO was signed, and to contracts worth over $10,000.

The executive order took effect immediately after it was signed by the governor.

"All Executive Branch entities are ordered to include in their procurement contracts valued over $10,000 a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by the contractor, in its employment practices, subcontracting practices, and delivery of goods or services, on the basis of race, sex, color, national origin, religion,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ge, political affiliation, disability, or veteran status," the text of Executive Order 61 reads.

Executive Order 61 is similar to the first executive order that McAuliffe made since his inauguration into office in 2014, which barred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practices in the state government workforce.

"Starting today,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will not do business with entities that discriminate based on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McAuliffe said in a statement. "Virginia is home to the best state workforce in the country and this policy will ensure there is no question that all Virginians are to receive the full benefits of their citizenship, without regard to their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Virginia Governor Terry McAuliffe pictured at the Miller Center in Charlottesville, VA in 2011. (Photo: Miller Center / Flickr / CC)

Meanwhile, the order includes an exemption for "certain private child-placement agencies." In 2012, the state adopted a "conscience clause" allowing adoption agencies funded by the state to turn away certain individuals or couples for religious or moral reasons.

The executive order drew support from LGBT rights groups, such as Equality Virginia.

"In addition to keeping Virginia a place with a common-sense, pro-business government, today's Executive Order is a huge leap forward in our goal toward becoming a state that is a safe, welcoming, and equal place for all Virginians," executive director of Equality Virginia James Parrish said.

Conservative groups such as The Family Foundation criticized the move.

"In essence, the Governor is saying that you can't do business with the state unless you allow men into women's bathrooms and fully embrace the administration's view that there are no distinctions between male and female, as well as its definition of marriage," said Victoria Cobb, president of The Family Foundation, in a statement. "This affects hundreds of entities that provide goods and services to or on behalf of the state, including many churches, charities, and other faith-based institutions."

The executive order can only be changed or repealed with another executive order.

Texas Senate Introduces Transgender Bathroom Bill Similar to North Carolina Law

Weeks after North Carolina's lawmakers failed to repeal their own state's controversial bathroom law, a similar bill was introduced in the Texas Senate on January 5, requiring the use of bathrooms in public schools, public universities, and government facilities according to biological sex.

Senate Bill 6, also known as the Texas Privacy Act, would override city ordinances that allow individuals to use restrooms according to gender identity, and also bars cities from requiring private businesses to have certain regulations regarding their bathrooms, allowing those businesses to make those rules for themselves instead.

Public facilities such as convention centers that are leased to private businesses, however, are exempt from the bill's requirements. Senator Lois Kolkhort, the sponsor of the bill, said that accommodations will also be made in public schools for transgender students on a case-by-case basis, according to the Texas Tribune.

Entities that act against the bill's requirements face fines of up to $1,500 for the first violation, and up to $10,500 for violations thereafter.

"We know it's going to be a tough fight. But we know we're on the right side of the issue," said Lt. Gov. Dan Patrick, one of the strongest supporters of the bill. "We're on the right side of history. You can mark today as the day Texas is drawing a line in the sand and saying no."

Opponents of the bill argue the bill is discriminatory, and also point to the economic consequences other states have faced for similar legislations, including in North Carolina and Indiana.

"All Texans care deeply about safety and privacy, but Senate Bill 6 isn't about either of those things," said Chris Wallace, president of the Texas Association of Business. "Senate Bill 6 is discriminatory and wholly unnecessary legislation that, if passed, could cost Texas as much as $8.5 billion in GDP and the loss of more than 185,000 jobs in the first year alone."

Meanwhile, Texas was one of a dozen states that filed a lawsuit against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in opposition to the Obama administration's directive issued last year, which allowed students to use restrooms and locker rooms according to gender identity. In August, a Texas federal judge granted a preliminary injunction, blocking the directive from being effective. However, states can still opt out of the injunction if they decide to do so.

Advocates for Chibok School Girls Mark 1,000 Days Since Abduction by Boko Haram

As Sunday marked 1,000 days since over 200 Chibok school girls were kidnapped by Boko Haram, advocates from around the world, as well as the Nigerian president, expressed hopes that the remaining girls would be freed.

In April of 2014, Boko Haram kidnapped 276 school girls in Borno. Since then, several girls were rescued, released, or were able to escape, but reports say about 200 are still held captive.

Nigerian President Muhammadu Buhari expressed a commitment to continue efforts to rescue the remaining girls who are captive to the extremist group.

"We are hopeful that many more will still return," Buhari was quoted as saying by Al Jazeera. "The tears never dry, the ache is in our hearts. Our hearts will leap for joy, as more and more of our daughters return. It is a goal we remain steadfastly committed to."

Buhari also made comments on Twitter, saying, "I'm hopeful that soon, Chibok community, Nigeria, and, indeed, the world, will welcome the remaining girls back home."

Other public figures and advocacy organizations have also made statements to mark the day. Amnesty International, a human rights group, called on Boko Haram to immediately release the girls, and also spotlighted the other abductions and attacks perpetrated by the extremist group.

"This terrible anniversary is a chilling reminder not just of the tragic disappearance of the Chibok school girls, but also all other individuals — many of whom are also children — who remain captive in Boko Haram's hideouts across the country," said Makmid Kamara, the acting country director for Amnesty International Nigeria. "These abductions and other attacks on civilians, many of which constitute war crimes, must stop."

Malala Yousafzai, Pakistani activist, said her "heart breaks for the families who long for their precious daughters."

"The men who took the Chibok girls and others like them cannot take away their courage or the love of their families," Yousafzai said in a statement posted on the Bring Back Our Girls Facebook page. "I still hold hope that one day the girls will come home, finish their education and choose their futures for themselves."

Meanwhile, one of the school girls was found to have been freed recently, according to a January 5 report from the Associated Press. Rakiya Abubakar and her six-month-old baby were found when Nigerian soldiers were interrogating Boko Haram suspects.

Chinese Pastor Yang Hua Sentenced to Over Two Years in Prison

BY RACHAEL LEE

A Chinese pastor who had been detained since December of 2015 has been sentenced to two and a half years in prison, according to his lawyer.

The sentence was given on January 4, according to a Radio Free Asia report, and Pastor Yang Hua was found guilty of "illegally possessing state secrets."

Hua is pastor of Huoshi Church, located in Guizhou. He was arrested and detained on December 9, 2015, when police raided the church, and Hua tried to stop them from confiscating a hard drive, according to China Aid.

Hua's lawyers have filed a lawsuit against the police, alleging that Hua has been tortured throughout his detainment. They have also defended Hua's innocence.

"Even a day in jail is too much for an innocent person," defense attorney Chen told Radio Free Asia. "I have only one thing to say about this. This isn't a judgement: it's persecution."

"This is a political case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law or the truth," Chen continued. "This is political persecution pure and simple."

Bob Fu, the founder of China Aid, also released a statement regarding Hua's sentence, calling it "purely barbaric religious persecution."

"We urge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elect Trump to unequivocally condemn this brutal act," Fu said.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래디컬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첨단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가주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수소수 무료 시음!
깨끗하고 건강한 물 드시러 오세요.

한국의 키즈아트 PLUS 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환원력이 뛰어난 수소가 생성되는 보틀

[제품특징]
*스테인레스 필터를 통해 잎차, 티백, 천연차 등 다양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적정사용온도 : 친환경소재와 제품 변형 방지를 위해 -20도~100도 사이에서 사용을 권합니다.
*심플한 디자인, 친환경 트라이탄 소재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휴대성으로 여행, 스포츠, 레저 등은 물론 일상에서도 편리합니다.

1병 $60.00 +TAX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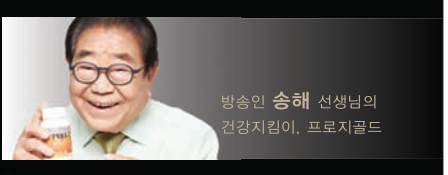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BAJA CALIFORNIA NATURAL SEA SA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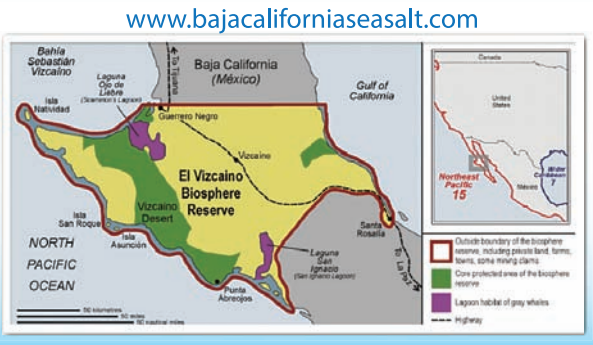
세계 최대 규모의 천일염 생산지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의 특징
- 최적의 생산조건에서 생성된 순도 99.70%의 미네랄소금
- 중금속 0.001% 청정 천일염
- 간수 제거된 건강 천일염
- 다년간 생산과정을 거친 최상급 천일염
- KA-Kosher 인증 천일염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염전의 특징
- 청정해역에 위치한 깨끗한 구역
- 적은 강수량 (50mm/년)
- 강한 일조량 (2M/년)
- 년 평균 기온 (18~22°C)
- 강한 바람

www.bajacaliforniaseasalt.com



UNESCO's El Vizcaino Biosphere Reserve

성분분석 및 인증서
바하캘리포니아 천일염은 기존의 호주 수입 천일염 및 국내 천일염과 비교하여 천일염의 기능과 소비자의 선호도 또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 1봉지

건강한 피부의 시작
에네스티 화장품
enesti

구입문의 213. 434. 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10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